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발표 자료집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일시 : 2009년 10월 30일 오후 1시

장소 : 국제신문 중강당

주최 : 부마민주항쟁 30년 사업추진위원회

주관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Program

13:00 **개회사 및 진행안내** (사회, 이귀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원)

13:05 **기념사**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1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13:10 **초청강연** : 조지 카치아피카스(전남대 사회학과)

13:50 **질의응답**

2부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발견

14:40 **기조발제** : 차성환(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5:00 **지역발제 1**

부산양서협동조합(김희욱)

마산양서협동조합(박진혜)

울산양서협동조합(진영우)

16:00 **휴식**

16:10 **지역발제 2**

대구양서협동조합(김균식)

서울양서협동조합(오균현)

광주양서협동조합(김현주)

수원양서협동조합(고정석)

17:20 **종합토론**

Contents

초청강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7
(조지 카차아피카스, 전남대 사회학과)	

기조발제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37
(차성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발표 1

부산양서협동조합의 창립에서 해산까지	57
(김희옥,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발표 2

경남양서보급회를 돌아보다	81
(박진태, 경남탐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발표 3

울산지역의 양서협동조합운동	103
(진영우, 울산민주시민회 상임의장)	

발표 4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운동에 대해	115
(김균식, 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발표 5

서울양서협동조합을 다시 본다	125
(오균현, 사)디지털소기업연합회 회장)	

발표 6

광주양서협동조합과 5.18민중항쟁	133
(김현주, 5·18 구속부상자회 광주시지부 사무차장)	

발표 7

수원양서협동조합	153
(고정석, 민노당 광주지구당 당원)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초청강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조지 카치아피카스, 전남대 사회학과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기조발제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차성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 서언
2. 양협운동의 기원과 전파
3. 양협운동의 추세와 성과
4. 양협운동의 제 조건
5. 양협운동의 성격
6. 양협운동의 지역적 특징
7. 결어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차성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 서언

양서협동조합¹⁾(이하 양협으로 약칭)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협동조합 조직이었다. 그러나 양협은 경제적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일반 협동조합과는 매우 다른 특징과 성격을 가졌던 조직이었다.

무엇보다도 양협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양협 혹은 양협운동²⁾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동안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이나 연구가 정치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만약 양협운동이 정치적 사건의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면 그 계기는 1979년의 부마항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박정권은 부마항쟁의 배후조직으로 양협을 지목하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으

1) 양서협동조합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부산의 경우, 정식 명칭은 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이었고, 마산의 경우는 경남양서보급회였고, 대구는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이었다. 그러나 통칭하여 양서협동조합으로 쓰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아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줄여 양협이라고 쓰기도 했다.

2) 양협운동은 양협을 설립, 유지,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활동을 지칭한다.

나 10·26정변으로 무산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양협운동이 표면상으로는 정치색을 띠지 않고 시민문화운동을 표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초 양협을 추진한 주체들은 양협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당국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³⁾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연구에서 양협운동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협운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오랫동안 미루어지다가 2003년 민주공원에서 기획, 발간한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에 김진영(부산대 교수)의 논문 “부마민주항쟁과 양서협동조합”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양협운동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물로서 양협의 태동과 발전, 타 지역에서의 전파 경로 등을 밝히고 양협운동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양협운동의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김진영의 논문은 양협운동의 발전과정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운동의 전모를 온전히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김진영 교수와 함께 논문 “부마민주항쟁과 양서협동조합”의 연구에 참여했던 차성환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2004년 『기억과 전망』에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양협운동의 발전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에 기초하여 양협운동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했는데 김진영의 논문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기술되었던 부분들이 정리되었다.

오늘 심포지움은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양협운동의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무엇보다도 양협운동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운동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여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협운동은 여러 지역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 남기기 어려운 운영 상의 여러 문제들은 당사자들의 기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을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게 연구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기억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양협운동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합당한 위상을 찾기 위해서 자료의 정리와 연구는 더 이상 미룰

3) 예컨대 부산 양협의 경우, 당국이 감시하는 드러난 민주인사들은 긴급적 배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양협이 반체제 조직이 아니라 건전하고 온건한 시민들의 사회개혁, 생활향상운동으로 출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수 없는 과제이므로 오늘의 심포지움이 갖는 의의는 크다.

이 글은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밝혀진 각 지역 양협운동의 전개 과정을 짚어 보고 양협의 성격 그리고 각 지역 양협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양협운동의 기원과 전파

(1) 기원

양협은 부산 중부교회 전도사로 대학생부를 지도하던 김형기가 1977년 협동교육연구원에서 신용협동조합 지도지훈련을 받으면서 캐나다의 안티고니쉬 운동에 공감하고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을 부산에 도입해 보자고 제안했으며 이 제안에 찬성한 김희욱, 최준영 등 부산지역 청년들과 논의한 끝에 나온 아이디어였다. 이 아이디어에 따라 부산양협이 설립되었고 여타 지역의 양협은 부산양협을 모델로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다(김진영 2003, 303-305; 차성환 2004, 69-70).

그런데 이번에 광주 양협 관계자들이 정리한 발제문에 의하면 광주의 장두석이 역시 1977년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김승호, 김형기, 장상순 등을 만나 양협을 생각하게 되었고 1978년 황일봉, 문병란에게 양협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3월에 설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장두석, 황일봉, 김현주, 2009).

이는 광주양협 설립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 매우 다른 것이다. 즉 광주양협은 1978년 6월 전남대의 '교육지표' 사건 이후 1979년 봄에 설립하였고⁴⁾ 서울양협을 모델로 설립하였다는 것이 기존의 설명이다.⁵⁾ 기존의 설명과 다른 설립 기원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양서협동조합은 거의 같은 시기에 양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설립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광주 양협의 설립 기원에 대한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의 양협이 설립된 경과를 보면, 시기적으로

부산이 1978년 4월이었고 그 다음에 마산이 1978년 8월 12일에 설립하고, 다음으로 대구가 78년 9월 22일, 서울이 78년 11월 12일 그리고 79년 봄에 설립되는 울산, 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산 양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며 광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김진영 2003; 차성환 2004).

반면 광주는 타 지역과 연관 없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최초로 양협을 설립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왜 다른 지역은 부산 양협의 영향을 받고 광주 양협의 영향은 받지 않았을까?”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이미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지역 간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 양협이 설립되는 1978년 4월에 광주양협 설립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광주양협이 1978년 3월에 설립되었다면 부산 양협 설립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면 왜 부산양협 설립자들은 광주양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점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⁶⁾

이러한 의문은 광주 양협이 1978년 3월 장두석의 자택에서 개설되었으며 조합의 임원을 구성하고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은 1978년 11월이라는 사실에서 해명이 가능할 듯하다. 다시 말하면 1978년 3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에는 광주양협은 사실상 장두석 개인의 사업으로 수행된 것이고 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11월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광주양협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이 시기 이후로 보여진다. 장두석 개인의 사업으로서 양서보급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보고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1978년 11월 이후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장두석이 황일봉과 문병란에게 “원주, 서울, 대구 등과 협력해서 양서 조합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설립 준비를 하고 있던

4) 윤희광, 1990, “유신정권과 싸웠던 현직 교사의 오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 전집』, 도서출판 풀빛

5) 이는 황일봉의 전화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이다(김진영 2003, 340).

6) 수원 양협의 고정석은 1978년 직장인 농민신문(주)을 그만 두고 그해 가을 통일사회당에 입당하여 농어민국 부국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부산에서 양협을 소개받고 서울양협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이후 수원으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정석의 고향은 광주였으나 광주양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정석 2009).

서울, 대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1978년 11월에 광주양협의 조직을 염두에 두고, 서울, 대구와의 협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광주양협의 설립 경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전파

양협운동의 전파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78년 4월 5일 부산양협이 설립되었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마산양협이 1978년 8월 12일 창립되었다. 다음으로 대구가 1978년 9월 22일에 창립하고, 서울이 1978년 11월 12일에 창립하였다. 그리고 울산은 부산을 모델로, 수원은 부산과 서울을 모델로, 광주는 서울을 모델로 하여 1979년에 창립하였다(김진영 2003; 차성환 2004).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대로 광주양협 관계자들은 광주양협의 설립을 1978년 3월로 잡고, 조직과 공간을 갖춘 것은 1978년 11월이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광주의 경우는 1979년이 아니라 1978년에 설립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1978년 3월을 창립 시점으로 보면 독자적으로 창립한 것이 되고, 11월을 창립 시점으로 보면 서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을 벤치마킹하여 창립했다는 증언이 설득력이 있다.

각 지역에서 양협 설립과 관련하여 벤치마킹한 모델은 마산, 대구, 서울, 울산의 경우는 부산이었고, 수원의 경우는 부산과 서울이었고, 광주의 경우는 (독자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천, 청주 등의 지역에도 서울양협을 모델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⁷⁾

이렇게 전파된 각 지역의 양협은 상호 교류는 있었으나 운영에서는 독립적이었다. 오균현의 기억에 의하면 전국 양협 관계자들이 대전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서울양협은 수도에 소재했기 때문에 지방양협에 도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오균현 2009). 또 서울양협의 자료에 의하면 1979년 7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전국 양서읽기 가두캠페인'을 벌였는데 행사 지

7) 오균현 면접 인터뷰(2003)

역이 서울 광화문, 종로 5가와 부산, 대구, 청주, 광주, 전주, 울산 등으로 보고되어 있어 각 지역 양협과 공동으로 추진한 듯 하나 더 이상의 자료를 찾기 어렵다.

3. 양협운동과 출판운동

그러면 1970년대 말에 부산에서 시작한 양협운동이 단기간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조직 모델로 등장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먼저 주체적 조건으로서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주체세력으로서 제도에서 배제된 지식인 집단의 형성되었던 점과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 조건으로는 유신체제의 폭압성이 민주화운동의 합법 공간을 극도로 좁혔던 조건, 정보 통제로 말미암아 대중의 정보 소통에 대한 욕구가 증대했던 조건, 그리고 1970년대부터 진보적 출판운동의 등장했던 점을 들 수 있다(김진영 2003).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1970년대의 출판운동과 양협의 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박형복(1990, 357-365)은 출판운동을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규정하고 운동의 과제로서 ① 출판운동의 민주화 ② 출판운동의 대중화 ③ 출판을 통한 진보적 사상과 이념의 전파 및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 ④ 출판의 조직자적 기능 강화를 들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는 출판운동의 모색기로서 사회비평적 출판운동기로 보고 유신치하에서 제도언론에서 대량해직된 언론인, 해직 교수, 현실참여적 문인에 의해 출판운동이 등장했으며, 이 시기의 출판운동은 사회변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휴머니즘적 체제비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출판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언호(1987, 11-18)는 출판의 3주체로서 ① 출판인(사) ② 저자 ③ 독자를 들고 이 세 주체의 동태적 상호 연대에 의해 출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출판은 저자 → 출판인(사) → 독자라는 수직적, 일반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질적 전환을 가져와 세 주체가 수평적, 쌍방향적으로 연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먼저 1970년대 중후반부터 창작과 비평사 등 새로운 출판세력이 등장했고, 민주민족운동에 참여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으며, 70-80년대의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자층이 출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독자들인 대학생, 노동자 등의 글쓰기가 확산되는 현상은 독자의 질적 양적 성장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출판의 한 주체인 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된 것이 양협이라 할 수 있다. 양협은 책의 독자들인 시민들이 조직한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이를 통해 출판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쉽고 값싸게 양서를 구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양협은 단순히 유통구조의 개선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서라는 기준을 세움으로써 출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출판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중후반부터 형성된 새로운 출판운동이 양협을 조직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면, 양협운동이 발전하게 되면 출판운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협은 출판 유통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협동조합적 혹은 문화운동적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다.

4. 양협운동의 성격

양협은 크게 보아서 3가지 측면을 갖고 있었다. 부산양협에서 조합원 교육자료로 활용했던 '양서협동조합론'이란 문건에 의하면 양협은 첫째, 신뢰와 협동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이며, 둘째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시민문화운동체이며 셋째는 인간이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간회복운동체이다(김진영 2003, 313). 즉 양협은 3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 운동체로서 통상의 협동조합과는 다른 것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협은 협동조합이나 문화운동체로서 분석할 수도 있고 혹은 민주화운동 조

직(양협의 표현으로는 인간회복운동체)로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영근(2005, 602)은 양협운동을 도시주민운동으로 파악하여 도시의 민중들이 전개한 도서운동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므로 주민운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민주화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양협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양협운동을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이해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협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어느 지역이나 민주화운동 세력이었고,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양협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양협이 기초하고 있는 조합주의 사상은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유신독재의 이데올로기와 대립적이며, 그 자체로서 민주화운동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었다. 다만 조합주의적 민주주의는 급진적 투쟁보다는 교육과 계몽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를 선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셋째, 양협의 활동 내용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교육과 학습이 중심이 되는데 이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획득하고 이를 민주화운동과 연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판적 현실 인식은 강한 실천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넷째, 여러 지역에서 양협은 정치적 탄압을 받아 강제 해산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수원 등 서울과 마산을 제외한 지역의 양협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민주화운동과의 관련 때문에 결국 해산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대로 양협은 일반적 협동조합운동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조직체로 탄생해서 소멸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협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주도 세력의 헌신성과 능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미 본대로 양협의 경영상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개 열악하였다. 협동조합의 경영이란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을 요하는 법인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의 경우 사회적 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조합원의 확보가 어려웠다. 또 양협의 운영자들은 열정과 성실성은 있었으나, 거의 경영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경찰, 정보기관의 감시와 방해공작이 시작되면서 조합원의 확보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협의 경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논리로 보면 거개의 양협은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도세력이 최소한의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양협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양협을 단순한 경제적 협동운동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소수의 헌신적인 운영자들이 보수도 없이 자기의 금전과 노력을 바쳐 양협운동을 이끌었다.

이에 대해 수원양협 운영자의 한 사람이었던 유동민은 “당시 양서협동조합은 이념(목적), 조직, 사업, 예산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 따라서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실패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생각이 맑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 상당수가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기여했다.”라고 한 것은 그런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정석 2009).

각 지역 양협이 해산하는 과정을 보아도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헌신적인 운영자들이 사국사건과 연루되어 피신하거나 수배되어 장기간 공백이 있을 때, 미숙한 조합원들이 대리 경영하다가 한계를 느껴 해산하게 된다. 이는 운동이 맹아상태에 있었던 중소도시의 양협이 가졌던 불가피한 한계로 보인다.

5. 양협운동의 전개와 성과

(1) 전개

양협운동은 대체로 큰 호응을 얻어 양적, 질적으로 발전되어 갔지만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추세를 양적,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양적 발전은 조합원의 숫자나 출자금의 규모, 그리고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지역 양협의 자료가 정확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상태는 알 수 있다. 먼저 조합원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부산양협의 경우 창립(1978년 4월) 당시 107명이던 조합원이 1979년 9월 말 현재 501명으로 1년 반 사이에 약 5배로 증가하였다. 마산양협의 경우 창립(1978년 8월) 당시 128명이던 조합원이 1979년 1월에는 24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운영난으로 인해 증가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 대구양협은 창립(1978년 9월) 당시 148명이 참가하였는데 곧 1천명에 육박할 만큼 조합원이 증가하였다가 이후에 당국의 탄압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양협은 창립(1978년 11월 12일) 당시 100여명이 참가하였고 1979년 3월 현재 231명, 1980년 3월 현재 413명으로 늘었다가 1981년 3월 현재는 213명으로 줄었다. 울산양협은 창립(1979년 봄) 당시 50명 선에서 시작하여 150명 정도로 늘어났다(진영우 2009). 광주양협은 창립 초기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최대 조합원 수가 1,400여명이라고 하니 단연 최대 규모일 것이다(김현주 2009). 수원양협의 조합원은 20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고정석 2009).

다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한정하여 출자금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양협의 경우 창립(1978년 4월) 당시 출자금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79년 9월 말 현재 출자금은 5,002,000원이며 1979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301,894원의 매출 이익을 기록하였다. 마산 양협의 경우 정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1979년의 자료에 의하면 6월 한 달의 회비 수납은 14명에 그쳤고, 도서관 매수입도 매출액의 4%로 미미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경영난으로 결국 7월에 해산하였다(김진영 2003, 326-327).

대구양협은 창립(1978년 9월) 당시 4,600,000원에 이르는 초기 자금을 투입하여 재정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이후 회원의 감소와 판매 대금의 회수 부진으로 재정난에 시달렸다. 서울양협은 창립(1979년 2월 28) 당시 1,937,000원에 달했던 출자금은 1981년 2월 현재로는 500,000원으로 감소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난을 겪었다. 울산양협은 자료가 없어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대체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다(김진영 2003, 311-341). 광주양협은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회원의 증가와 지역 인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김현주 2009). 수원양협 역시 재정난에 시달렸으며 수박 판매 등으로 재원을 보충했다고 한다(고정석 2009).

양협운동의 질적 발전은 활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양협의 본래 기능인 양서의 보급, 이용 외에 소모임 활동이나 세미나, 강연회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양협은 1978년 6월부터 매주 1회의 세미나를 지속했으며, 노동문제, 농촌문제 등을 주제로 한 학습모임, 사진반, 연극반, 꽃꽂이반 등의 취미 모임, 강연회의 개최, 농촌 활동 등으로 활동을 넓혀갔다. 마산양협도 연구발표회, 세미나, 학습모임, 회원수련회, 3·15의거 추모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김진영 2003). 대구양협도 양서 대출 외에 세미나, 교양강좌, 민주화운동가 및 지역 인사와의 만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김균식 2009).

서울양협은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대화, 일어반, 한문반, 독어반, 연극 연구반, 한국 근대사 연구반, 사회과학연구반, 역사학 모임, 어린이 도서연구회 등의 학습 모임, 사상 강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김진영 2003). 광주양협 역시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업은 양협 회원이 된 고교생들이 자신들의 소속 학교에서 독서회를 만든 사례이다(김현주 2009). 울산양협은 독서토론을 주로 했고 근대사 연구모임이라는 소모임을 운영했다(진영우 2009). 수원양협도 양서 보급 외에 학습 모임과 저자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상을 살펴보면 양협운동이 구사한 행위 레퍼토리(repertory)⁸⁾는 각 지역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 이는 양협운동이 네트워크로서 상호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과

앞에서 본 대로 양협운동은 양적, 질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급속히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양협은 1년 내에 전국 7개 도시에 확산되었다. 물론 급속한 확산과 함께 약점도 나타났다. 당국의 감시와 탄압 그리고 경영의 미숙함 등이 겹쳐 해산하는 곳도 생겼고,

8) 레퍼토리는 상황에 따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투쟁을 위한 상상력과 영감을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목록으로 사회운동의 지속과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지역에서 경영난에 허덕였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하였다.

양협운동의 성과는 여러 측면에서 거론할 수 있겠지만 민주화운동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양협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양협은 이전의 재야단체나 지식인단체에 비해 폭넓은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조직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즉 대중을 민주화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형성하는 새로운 조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양협운동을 통해 지역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 이는 민주화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취약했던 지역일수록 더 분명하다. 즉 부산과 같은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마산, 대구, 울산, 수원 등 사회운동의 토대가 약한 지역에서는 양협운동이 운동 주체의 배양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6. 각 지역 양협운동의 특징

양협운동은 부산을 시발점으로 하여 단기간에 전국의 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각 지역은 제반 여건이 달랐고 주도세력이나 조합원의 인적 구성도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전국 각 지역의 양협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많았다.

(1) 중앙과 지방의 차이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서울이라는 중앙과 다른 지방과의 차이점이다. 당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인지역은 민주화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그에 비하면 다른 지방 도시들에서 민주화운동은 경인지역과 큰 격차가 있었다. 당연히 양협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서울이 다른 지방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협운동의 양상을 보면 서울양협은 부산양협이나 광주양협 혹은 다른 지방의 양협보다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수, 경영 상태, 해당 도시에서의 영향력 면에서 서울양협은 지방의 양협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서울에도 양협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있었지만 지방보다 더 심하지는 않았고 잠재적 운동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서울의 민주화운동은 아직 대중화되지는 못했지만 중산층 중심의 운동이 일정하게 발전하여 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즉 1978년 7월 '민주주의 국민연합', 1979년 3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같은 재야운동 연합체가 결성되는데 그 이전에 교수(해직교수협의회), 문학인(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정치범(양심범가족협의회), 청년(민주청년협의회), 재야 정치인(민주헌정동지회), 학생운동(각 대학의 조직), 노동운동(민주노조), 천주교, 기독교 등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부문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의 양협운동은 대체로 중간층 지식인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 하였는데 양협운동이 자리 잡기 이전에 지식인집단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지방은 아직 운동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어서 미분화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를 결집할 구심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진다. 부산, 광주와 같이 운동의 자원이 일정하게 존재하면서 그것이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양협과 같은 공개적 대중조직이 활성화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중에서도 울산, 수원과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운동은 맹아 상태로서 양협의 역할이 더욱 필요했지만, 운동의 잠재력은 큰 반면 운동 자원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양협의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의 경우, 가장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예민한 대학생층이 양협을 통하지 않더라도 금지된 도서나 출판물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었던 점도 지방과 달랐다고 보여진다. 지방의 경우 조합원 중 대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서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문화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서울양협은 지방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존속했다. 서울양협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제 해산 같은 조치를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에서는 양협이 운동 조직으로서의 주변적인 것이었고 운영자들이 시국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양협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 데는 권력의 감시와 방해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한 운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 서울양협이 다른 지역 양협과 달랐던 점은 1982년 양협을 해산한 이후, 1990년에 와서 다시 재창립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이 재창립 시도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지만 서울양협의 주체들이 양협 활동에 큰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2) 마산양협의 사례

마산양협은 상대적으로 일찍 설립했음에도 권력의 방해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동력의 부족으로 1년이 채 못 되어 자진 해산하였다. 이는 다른 지방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사례였다. 마산양협의 해산 원인은 책임감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운영자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협의 운영자가 최소한의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했다. 마산양협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이광두였는데, 그는 운동보다는 사업으로서 양협을 바라보았던 측면이 강했고 스스로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른 운영자들은 헌신성은 있었으나 최소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박진해 2009).

운동의 자원이 제약된 상태에서 운영자의 능력과 자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마산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는 지역의 명망가층을 이사로 세우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긴요한 초기 투자를 이끌어내었는데 기여하였다. 마산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여론 주도층들이 서울지역 유학생을 비롯한 일부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독재정권의 충실한 협조자 내지 하수인으로 전락”(박진해 2009)한 지역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산양협은 공식적으로는 해산했으나 그 활동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었다. 독서모임을 유지하고 부마항쟁 당시에는 구속자 돕기 모임을 만들고 83년도에는 무크지

『마산문화』를 발간하였고 1988년에는 민간 도서관으로 되살아났다. 민간 도서관 책사량은 개관 후 6개월 만에 회원수가 1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마산양협의 짧은 실험은 마산의 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놓았던 것이다(박진해 2009).

(3) 양협의 운영 전략

양협의 운영 전략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지만 각 지역 양협은 지역 실정에 따라 또는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운영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협운동은 합법적이고 온건한 문화운동을 표방함으로써 권력의 감시나 압력을 벗어나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가입,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양협은 이러한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국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려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당시 가장 민감했던 학생운동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전략과 밀착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부산양협의 경우, 대학생들의 학습 모임은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분리함으로써 학생운동과의 거리를 두었다(김희욱 2009). 또한 정치적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섭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인 거리 두기를 실행하였다(김진영 2003). 따라서 경찰이 음성적인 감시와 방해는 하지만 공개적인 탄압을 하지는 못했다.⁹⁾

반면, 대구양협의 경우, 비교적 학생운동이나 농민운동 등의 관계자들과 밀착하여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경찰은 음성적인 감시와 방해는 물론 공공연한 탄압을 가하기도 했다. 대구양협의 회지였던 '달구벌' 창간호를 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량으로 배포했을 때 경찰은 회지 발행을 중지시키고 배포된 회지를 모두 수거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소동이 오히려 대구양협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경찰의 감시와 방해가 더욱 심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김근식 2009).

9) 음성적 감시와 방해는 양협의 활동을 몰래 관찰하는 일과 조합원의 부모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녀의 조합활동을 막도록 하는 사례들이다.

조합원의 구성을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도 운영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광주양협의 경우, 양협의 운영 전략으로 고등학생의 의식화에 초점을 두었다. 윤광장에 의하면 당시 광주에서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여 고등학생들은 양협으로 오도록 하고, 대학생들은 민청학련 관련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서 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윤광장 1990). 학생들이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은 가입비가 있었으나, 학생들은 가입비가 없었다. 광주의 대동고등학교 등에는 '독서회'가 조직되기도 했다(김현주 2009).

반면 서울양협의 경우, MBC 라디오의 양서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조합원이 되기도 했으나, 조합원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화이트칼라들이었다(오균현 2009). 수원양협의 경우는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수원은 당시까지 종합대학이 없었고 4년제 단과대학은 서울농대와 아주공대 뿐이었다. 수원 사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없었고 1970년대 말까지도 오로지 서울농대의 학생운동만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농대생들의 양협 참여는 제한하고 가능한 한 수원 출신자로 조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수원에 민주화운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수원 출신자 가운데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런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후 수원 사회운동에 수원양협 출신자들이 크게 기여하였다(고정석 2009).

7. 결어


이 글은 양협운동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 향후의 연구를 위한 가설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양협운동은 앞으로 각 지역의 구체적 상황과 당대의 구조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할 과제다. 그러한 본격적 연구를 위한 디딤돌로서 오늘 심포지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좋은 발제문을 준비해 주신 각 지역 양협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표1) 각 지역별 양협운동의 특징

구분	회원 상황	경영 상태	운영 전략	지배 측의 대응(평시)	지배 측의 대응(계엄시)	지속 기간
부산	107(78.4) → 501(79.9)	양호 (79. 후자)	운동권과 거리 두기	감시, 방해	부마항쟁으로 강제해산	1년 7개월
마산	128(78.8) → 242(79.1)	부진 (운영진의 퇴진 지도력위기)		내부동력 부족으로 자진 해산		11개월 (78.8-79.7)
대구	148(78.9) → 1천여명(?)	부진	운동권과 밀착	감시, 방해	운영진 투옥 후 해산	2년 (78.9-80.9)
서울	100(78.11) -231(79.3) -413(80.3) -213(81.3)	부진 (타양협 채권 회수 부진)	운동권과 거리 두기 (직장인 중심)	감시, 방해	감시, 방해	3년 5개월 (78.11-82.3)
광주	최대 1,400여명(?)	양호	고교생 중점 관리	감시, 방해	5.18항쟁으로 강제해산	1년 8개월 (78.11-80.6)
수원	최대 200여명(?)	부진 (열악한 여건)	수원출신중심 (대학생중심)	감시	운영진도피, 교체후유지, 해산	2년 8개월 (79봄-81.12)
울산	50여명(79.봄) 150여명(?)	부진 (열악한 여건)		감시	운영진수배, 교체후 해산	1년여(79봄- 80.봄)

참고문헌

- 김언호. 1987.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서울: 한길사.
- 김영근. 2005. “1970년대 민중운동과 민주지향”.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진영. 2003. “부마민주항쟁과 양서협동조합”. 민주공원 편,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부산: 민주공원
- 류근일. 1997. 『권위주의체제 하의 민주화운동 연구』서울: 나남출판.
- 박형복. 1990. “출판운동의 변혁적 전망에 대한 모색” 김왕석·임동욱 외,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아침.
- 부경역사연구소. 1998.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부산: 늘푸른.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부산: 부산광역시.
- 안병욱 외. 2005. 『유신과 반유신』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윤광장. 1990. “유신정권과 싸워오던 현직 교사의 오월”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오월 민중항쟁사료전집』. 서울: 도서출판 풀빛.
- 차성환. 2004.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겨울호.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차성환. 2004.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겨울호.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승헌 외. 1984.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서울: 춘추사.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1

부산양서협동조합의 창립에서 해산까지

김희욱, 전 부산양서협동조합 전무

1. 들어가면서
2. 창립하기까지
3. 창립 이후
4. 해산 이후
5. 평가 및 제언

부산양서협동조합의 창립에서 해산 이후까지

김희욱(전 부산양서협동조합 전무)

1. 들어가면서

발제자 본인은 당시 양서조합을 책임지고 운영했지만 그동안(32년) 한 번도 양서조합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운동적 차원에서만 요구되었을 뿐 운영적·역사적 차원에서는 한 번도 요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표 내용은 발제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운영 및 사실적 경험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자료가 별로 없고 기억도 희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불충분한 발제 내용이지만 이후 보완되어 보다 충실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2. 창립하기까지

발제자 본인은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 75년부터 부민동 소재 부산영락교회에서 다시 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77년 2월 경 토박이 교인이란 프리미엄 때문인지 빠르게 청년회 회장이 되었다. 이 당시는 유신체제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사회단체는 물론 기독교청년회도 전반적으로 대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었다.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부산영락교회 청년회에서는 6월에 <청년신앙강연회>를 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러면서 예장의 서남동 목사, 기장의 안병무 목사, 감리교의 변선환 목사 같은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심을 배워온 본인은 그 같은 출중한 강사가 그리웠지만 모시기가 여건상 여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부산의 인물 중에서 최선의 강사를, 특히 평신도 중에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최선의 강사를 물색하던 중 교회 주위의 믿을만한 어른들이 김광일 변호사, 정권섭 부산대 법대 교수, 조운복 부산대 의대 교수 등을 추천하여 섭외하러 다녔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백지광고를 내어 반정부 인사로 새롭게 알려졌고, 현대 교인들이 가롯 유다보다 못한 신앙이라는 취지의 '가롯 유다 예찬론'을 일간 신문에 기고하여 교계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기독교인 상(象)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김광일 변호사에게 찾아가 <청년신앙강연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강사를 부탁하니 쾌히 응낙해 주었다. 그 인연으로 자주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특히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지금은 경주 팔복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는) 김형기씨와 말이 통하게 되면서부터는 변호사보다는 김형기씨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친분이 쌓이고 인격을 믿게 되면서 의기투합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당시 <청년신앙강연회>의 주제는 제목을 추상화시켜 <청년아? 왜!>로 정했다[도판 1]. 정보과 형사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연회를 계기로 기독교청년들은 교파를 넘어 부산기독교청년회 간의 나뉠대로의 신선한 자극을 통해 연대를 갖게 되었다. 예장에 속한 본인부터 기장의 중부교회와 유대를 갖게 되었고, 그 교회의 최성묵 목사와의도 친교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타 교단과의 공식적인 관계와 유대는 교계에서는 없던 시대였다.

그 후 어느 날, 김형기씨는 나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되는데, 그는 나에게『앤티고니쉬 운동의 철학과 전략』이라는 두께가 얼마 안되는 하얀 색 표지에 무지개가 신뜻하게 그려진 문고판보다 약간 큰 책을 보여주었다. 이 내용은 캐나다 동부지역의 노바스코시아 주(州) 앤티고니쉬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의 변화를 코디 신부가 알기 쉽게 적은 내용으로, 번역은 송보경씨가 한 것으로 기억된다.



도판 1 | 77년 6월 청년신앙강연회에서 김광일 변호사의 강연 장면

그 책을 계기로 며칠 후, 부산에 서도 이 같은 운동을 해보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무엇을 매개로 할 것이냐 서로 고민하다 '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의 아이디어에 함께 동감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진리를 알리고, 불의를 밝히고,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양서>라는 책과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1/10이상 출자 제한) <협동

조합> 정신과는 환상의 콤비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환상의 콤비가 조합원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에 혁신적인 아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

당시 부산의 지적문화 풍토에 대해 발기위원장이었던 본 발제지는 <양서조합소식> 창간호 1면에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을 창립하면서>라는 제목의 '창간사'에 다음과 같이 쓴 글이 남아있다.

우리 고장 부산은 다른 어느 국내 도시보다 늦게 형성되었으나 반면, 그 어느 도시보다 큰 도시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런데 그 발전은 ...**(상략)**... 구한 말의 역사적 오류 속에서 일제의 침략적 야심의 수탈적 경제를 발판으로 급속히 성장한 데에다 6·25 전쟁이란 타율이 기폭제가 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였기에 인간애·민족애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전통을 지닌 도시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경제적 상흔과 사회적 모순이 만연하여 그 문화적 풍토는 불모지일 수밖에 없고, 그 불모지에서 자라는 문화는 척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문화적 병폐를 통감하는 청년들이 부산 문화의 후진성과 시대의 아픔을 위해 작은 힘을 모우면 큰 힘이 된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토대로 하여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에 다 같이 모였다. 앞으로 우리 양서협동조합은 좋은 책을 통해서 지적·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인재를 발굴하고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귀면서 사회의 어둡고 병든 곳을 개혁하여 참다운 인간애가 넘치는 복지 부산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문화적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소식지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시대적 의의>라는 김형기씨의 ‘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현실은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 왔으나 현대에는 그 요청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다. …(생략)… 고도의 산업사회에 돌입해 감에 따라 물질생활은 전보다 풍요해져 가지마는 지식·재화·권력의 소유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부의 생산 수단 및 유통 구조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행정 권력의 형성과 그 집행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생략)… 우리는 입신출세와 부귀영화를 삶의 최대 가치로 삼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려 한다. 강자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짓밟는 저열한 권위주의에 젖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민주적 생활은 없다.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익히지 못하니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견해도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다. …(생략)… 협동조합 운동은 민주주의를 역사와 사회 속에서 굳건히 정착시켜가는 운동이다. 그것은 신뢰와 협동의 인간 관계를 기초로 하여 현실에 주어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민주주의의 내실을 충족시켜가는 운동이다.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다수에게 주인으로서의 실력과 역량을 갖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주·자립의 기반을 다져가는 운동이다. 우리가 지금 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글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부산’에서 양서협동조합을 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의미와 그 ‘시대 상황’의 소프트웨어적인 의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양서>로 <협동조합>을 하기로 결정한 후, 그는 가장 교파인 중부교회에 나갔으므로 가장 교회 청년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 나는 당시 예장 통합 측으로 부산에서 가장 큰 영락교회의 청년회 회장이었으므로 예장교회 청년들에게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당시 부산에서 여성운동에 앞장서면서 크리스찬아카데미 여성과 사회모임에서 활동하던 정동진·오홍숙·박재금·오지순 및 신선명 등이 협조하였다. 그 외에 종교와는 관계없는 인맥가운데서도 좋은 분들에게 알렸다.

그 후 본인 외에 김형기, 최준영, 박현삼, 정동진, 오홍숙, 서연자, 구성애, 고호석 등 20여명이 모이게 되면서 양서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위원회가 구성되고, 점점 창립의 분위기에 동력이 붙으면서 조직을 가다듬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추천되어 창립을 위한 발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준비모임은 그해(77년) 가을부터 수요일마다 주로 중부교회 친교실에서, 그리고 몇몇 장소에서 모여 양서조합 창립을 위한 공부를 해나갔다. 돌아가면서 발제자를 정하고 발제 내용에 따른 토론도 하면서 이론을 터득해 나갔고 친목을 통해 팀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그 내용은 <양서조합소식>지 '창간호' (78.4.1)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 1977년 10월 12일 : 협동조합의 원리
- 10월 19일 : 협동조합의 역사
- 10월 26일 :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과 현황
- 11월 9일 : 전통사회에서의 협동 조직
- 11월 23일 : 조합 정관 초안 작성
- 11월 25일 : 출자 증권 제작
- 11월 26일 : 협동조합 발기문 및 안내서 작성
- 12월 14일 : 앤티고니쉬 운동
- 12월 21일 :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개발
- 1978년 1월 14일 : 자본주의의 경제적 본질과 협동조합
- 1월 21일 : 정관 해설
- 1월 28일 :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 2월 4일 : 협동조합 정신과 신학적 정신

그 외에도 2부 순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현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과 대안들이 신변 잡담과 함께 오고 갔다. 이렇게 5개월 이상 조용히 그러나 신나게 진행하는 가운데 의식과 팀워크를 다지고 공유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나갔다.

78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자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창립을 위

해 조직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정식 명칭은 <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으로 정하고, 조직은 청년중심으로 하되 대외적인 공신력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위촉 받기인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광일 변호사, 이홍록 변호사, 최성목 목사, 김동수 부산의대 교수, 신일기업 부산대표였던 이광혁 영락교회 장로, 김기열 이사벨 여고 교장, 구경수 결핵과 전문의사, 오수영 신부, 소설가 윤정규, 부광약품 부산소장 이길웅 등을 위촉받기인으로 모셨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로 기독교청년들 중심이었고, 가톨릭은 소수의 가톨릭 농민회(=줄여서 '카농'이라 불렀음)와 관련된 청년들이었다. 불교 쪽은 아직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는 유신체제였으므로 일반 청년들은 사회참여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기가 자유스러웠기 때문에 종교인 중심의 청년들이 먼저 앞장서게 되었다.

이렇게 모여진 조합원 중 먼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0~21일(양일간)에 걸쳐 제 1회 조합원 종합 교육을 YMCA 친교실에서 실시하였다.

20일 저녁 7시: 협동조합의 원리. 8시: 협동조합의 역사.

21일 저녁 7시: 정관 해설 및 운영방법. 8시: 대화의 시간 및 친교.

다음 날인 22일 부터는 YMCA회관 5층에서 임시 사무를 보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출자증권을 창립발기위원장의 이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제 2회 조합원 교육은 3월 9일(목)~10(금), 양일간에 중부교회에서 실시하였고 10(금) 21, 그 교육내용은 제 1회와 동일하였다.

이사장에는 드러난 인물보다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앞장서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여 김광일 변호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서 신뢰할만한 이홍록 변호사를 이사장에 모시기로 내정하였다. 그리고 그 실무 운영의 책임자는 전무라는 직책을 정해, 그것을 당시 부산여자전문대학에 강사로 있던 창립발기위원장인 김희욱이 맡기로 하고, 간사로는 서울 농대 휴학 중이던 소진열군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그리

고 9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모든 중요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78년 4월 2일 3시에 YMCA 옛 회관 1층, 당시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강당에서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도판 3. 4). 이사진은 투표에 의해 김동수·김형기·윤정규·이홍록 이상 4인을 2년제 이사로, 신선명·박현삼·김명준·정동진·정영운 이상 5인을 1년제 이사로, 감사로는 박노춘·박상도·임동규 이상 3명을 선출하였다.

4월 5일, 1차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에 이홍록·부조합장에 박현삼·서기 이사에 정영운·교육 이사에 김형기·홍보 이사에 신선명·도서 선정 이사에 정동진을 선출하고, 실무 책임자인 전무에는 김희욱을·간사에는 김점란을 임명하였다. 4월 15일 2차 이사회 의에서는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동서점 운영의 원칙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문화 개방의 원칙). 양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이용고 비례 배당의 원칙). 민주적 관리를 통하여 민주적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민주적 관리의 원칙).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가진다(=경제적 민주주의의 원칙). 일체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중립의 원칙). 조합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조합의 발전을 이룩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교육의 원칙)”는 원칙과 함께 이자 제한의 원칙, 시가 판매의 원칙, 현금 거래의 원칙을 지켜 나갔다. 그리고 당시 세련된 협동조합의 로고와 협동서점의 로고는 (주)사니(?) 식품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박재훈이 해주었다.



도판 2 | 제 2회 조합원 교육장면-중부교회. 문에 1회 교육장면이 사진 설명과 함께 붙어 있고, 벽에는 교육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도판 3 | 78년 4월 2일, YMCA강당에서 창립총회 시 사회를 보고 있는 발제자

2. 창립 이후

이흥록 이사장이 당시 금액 100만원(?)을 출자금 형식으로 쾌적하여 4월 11일 YMCA 임시 사무실에서 보수동 책방 골목에 2층으로 된 허름한 가게(4평)를 전세언어, 4월 22일 <협동서점>이라는 이름으로 책방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책을 공급받기 위해 이흥록 이사장과 함께 서울로 가서 한승헌 변호사의 도움으로 출판사의 협조를 받아 나갔다.

당시 협조를 얻은 곳은 한길사. 돌베개 등 갓 만들어진 사회과학 출판사들이었는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주었다. 이 같은 출판사를 세운 사람들은 당시 언론계(주로 동아일보)·학계(서울대·연대·고대 등)에서 정론을 주장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다 해직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출판사가 발간하는 진보적 성향의 신간들은 서울에서 공급받고 나머지 책들은 부산의 도매 서적에서 구입하면서 책꽂이를 채워나갔다. 이



도판 4 |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의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끝내고 기념촬영

후 광민사 등 서울의 출판사와 점차 거래가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산에 출장 오면 결재와 함께 도서출판 경향과 독서 수준, 그리고 시국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보수동 책방골목에 오는 소비자들에게는 협동서점이 기존의 책방과는 다른 서점임을 알렸다. 즉 개인이 운영하여 얻는 이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책방이 아니라 그 이익금을 사회의 진보적인 운동에 쓰고,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책방임을 소개하면서, 양서 추천은 물론 조합원으로서의 가입도 적극 권유해 나갔다.



도판 5 |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이 발행한 오천원권 출자증권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30%)이 돌아가고, 구매에 대한 비례 배당을 통해 기타 서점보다 싸게 사게 되는 것은 물론, 덤으로 부산 문화발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그 주인공이 된다고 설명하여 나간 것이다.



도판 6 | 천원권 출자증권. 만원권도 있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과 당시 가입금(2,000원) 및 출자금(매월 17주와 1,000원 이상)[도판 5, 6]을 받고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매월 그 달에 가입한 조합원 전체 교육은 부평동 소재 새생활수련장, 또는 중부교회에서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협동조합 운동의 원리와 역사, 정관해설, 양서란 무엇인가, 대화 및 친교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교육이었다.

책방에서는 책을 팔되, 없는 것은 주문 받고, 무슨 책을 읽을까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책을 추천해 주었다. 2층 방에서는 여유분의 책을 보관하면서 조합원들의 조직 활성화와 조합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공간으로 키워 나갔다.

당시 소모임으로는 어학 연구모임(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독어·불어·한문 등), 지역사회개발 연구모임(사회·여성·청소년·아동·공해·농촌·도시문제), 전문학술 연구모임(일본·미국·한국·중국·제3세계), 종교 연구모임(기독교·불교·천주교·천도교·유교·원시종교), 예술 연구모임(꽃꽂이·서예·그림·문학·연극·음악·사진·탈춤·합창·우표·등산) 등 의식화 스타디 모임과 취미 모임을 소그룹 별로 만들어 적성에 맞는 곳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였다.

그러던 중 78년 4·19기념일을 즈음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시국사건, 소위 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박정희 물러가라”고 뿌린 페인팅 및 유인물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수사과정에서 중부교회 및 협동서점과 관련된 인맥으로 밝혀지면서 협동서점이 경찰서 정보과에 요주의 책방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도판 7 | 독서주간(78년) 맞이 제 1차 강연회 장면.
강사-임현영 문학평론가.주제-한국인의
지적풍토와 독서경향



도판 8 | YMCA 강연회장 입구에서 안내하는 조
합원들

그 후 정보과 형사들의 눈빛이 자주 빛났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효과가 컸는지, 어쨌든 날로 달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의식화 스타디는 조합원 중 대학생을 중심으로 분위기는 속담하게, 내용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공부해 나갈 수 있었다. 서점이라는 공간에 2층이라는 안정성이 색깔이 분명한 종교기관이나 특정한 사회단체와 달리 부담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이는 대학생들의 그 열정과 분위기가 정보과에 감지되면서 책방을 떠나 장소를 대학가와 그들이 원하는 비밀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각 대학교에 언더 스타디 그룹들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협동서점에서 조합원 중 송세경 설동일 등이 스타

디 모임을 이끌어나갔으나 점차 협동서점과는 관계없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이 누룩처럼 스스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발전해 나갔다. 그러면서 부산대학과 동아대학 등 대학가에서 언더스타디가 자가발전으로 확대되어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을 통해 양서조합에 가입했거나 출입했던 청년들이 뒷날 민주화를 이루는 청년 세력의 모태가 된 것이다. 양서조합이 소위 의식화의 복덕방 역할을 한 것이다.

〈양서선정위원회〉에서 양서를 선정하면 그 내용을 매달(?) 발간하던 4페이지짜리 〈양서조합소식〉지에 실었다. 9월 마지막 주인 독서주간을 맞이해서는 강연회도 실시하여 78년 제 1차 강연회는 YMCA 강당에서 임현영 문학평론가를 모시고 〈한국인의 지적 풍토와 독서 경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대도판 7. 이런 강연을 통해서 시대적 삶을 일깨우고 사회참여와 역사 발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해 나갔다.

다음 해(79년)에는 부산양서협동조합은 이렇게 운영되고, 조합원이 되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소책자의 디자인 및 인쇄는 석천문화사에서 했다.

독서주간을 맞이해서는 양서 100권을 철학·문학·예술(시·소설·수필)·정치·경제·역사·교육·아동·종교·기타 등 분야 별로 구분하고 선정해, 그 책 제목을 당시 최신 읍셋 부로슈어로 만들어 알렸다. 이 인쇄물 외 조합과 관련된 인쇄물은 당시 인쇄소를 운영하던 박현삼 부조합장이 실비로 때로는 무가로 해주었다.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그 기간 중 9월 25일에는 제 2차 초청강연회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저자인 소설가 조세희씨를 초청하여 노동자의 관점에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강연도 하였다.

이 같은 양서조합의 소문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도 내려와 우리들의 그간의 창립과정과 운영방식을 배우고 올라가 양서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마산, 대구, 울산, 수원, 그리고 광주와 원주에서도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만든다는 소문이 들렸다.

1979년 2월 25일 YMCA 강당에서 2차 정기총회를 희망이 샘솟는 비전속에서 치루고, 2부 순서에서는 박희섭 협동교육연구원장을 모시고 <세계 협동운동의 흐름>이라는 제목의 강연회도 가지면서 협동과 신뢰의 정신을 다지고 업그레이드해 나갔다[도판 9].



도판 9 | 79년 2월 25일, YMCA강당에서 제 2차 정기총회와 강연 회를 마친 후 여흥시간

책방도 커지면서 보수동 책방의 4평 건물 규모로는 부족하여, 79년 3월 5일에는 좀 더 큰 건물로, 좀 더 큰 거리로(대청동 1가 38번지, 서라벌호텔 입구)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도 증가하고 책도 그런대로 팔리면서 책방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손익 분기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책을 보다 다양하게 소개하고 읽히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 중에서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는 추천할만한 양서 5권 이상을 서점에 내놓게 하여 유료 도서관 형태의 운영도 하였다. 즉 조합원이면 대여기간 일주일에 정가의 1/10을 내고 빌려가는 책꽂이 공간도 마련한 것이다.

책방 내에는 <알림판>을 마련하고 그곳에 조합 소식, 신규도서 소개, 그달의 책방운영 실태, 정관 비치 등을 하였다. 특히, 매월 1좌(1,000원) 이상의 출자와 1권 이상의 책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임원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권과 출자액 및 이용에 대한 이익배당, 그리고 조합 운영에 대한 제안과 이사회에 대한 모든 결의 사항을 통보받는다는 안내와 기타 조합이 베푸는 제반 혜택을 받는다는 권리도 강조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긍지를 상기시켰다.

또한 조합원이 서점에 오면 마스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꼭 알아야 할 시대의 진실과 세상 돌아가는 변화를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조합 발전을 위한 그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였다.



도판 10 | 에덴공원에서 농촌현장 활동을 위한 강변축제 중의 한 장면

79년 6월 23일에는 농촌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인 <강변 축제>를 하단의 에덴 공원에서 하였다(도판 10). 당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여름농촌활동은 일손돕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농민과 의식이 일체가 되는 농활을 위한 지침서를 서울 농대 출신인 송세경 조합원에게 부탁하여 「농촌문제와 농촌활동」(원고지 100매 정도)이

란 자료를 만들어,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농활은 이런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을 축제에 온 사람들에게 배포하며 알렸다.

모여진 기금으로는 7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경남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울림부락(진영우씨 고향)에 농촌 현장 활동 봉사단을 파견하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농촌 운동이었다. 며칠 후 시경에서는 이 자료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압수하고 나와 송세경은 연행을 당하여 조사받기도 하였다.

78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즐거운 추억에 따라, 79년 여름(7~8월)에는 시에 탈의장 운영 신청을 하여 아예 송정 해수욕장에 탈의장을 운영하였다. 협동조합의 상징인 '무지개'란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실비로 친목과 여가를 선용하게 하였대도판 11].

포부도 크게 가졌다. 앞으로 양서협동조합은 직영 협동서점(양서보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직영 출판사(양서출판) 운영, 직영 도서관 건립, 직영 연구소(참문화 창조) 설립, 직영 대학도 세워 우리가 꿈꾸는 참문화를 창달하여 범시민들에게까지 확산시켜 나가자는 장기 마스터플랜도 구상하였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 나간 각 지역의 양서조합과 연대하여 국민들에게 정체성있는 문화의 기(氣)를 신명나게 불어 넣어주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 주체적인 정립을 전국 동시다발적인 축제를 통해 형성해 보자는 희망의 계획도 설계하였다.



도판 11 | 여름 해수욕장에서 친목과 여가를 즐기던 조합원들. 장소는 78년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추측됨

그러나 시국은 점차 어두워지면서 정보과 형사들의 서점 방문이 아침에서 아침·저녁으로, 나아가 불시에 자주 방문하곤 하였다. 책도 독재 정치와 잘못된 역사와 사회 비리를 밝히거나 천민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책들, 그리고 노동운동과 관련된 책들이 판매 금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몰래 뒤로 필었다. 우리 책방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책이 진정한 <양서>였고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이다.

11월 16일 강제 해산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공식 통계인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에 의하면 조합원 수는 501명, 출자금은 5,002,000원, 도서 판매액 누계는 12,766,289원으로 나타나 있다. 그 자료집의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발표했을 것이다. 본인의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본인도 이 자료를 참고한 차성환의 『기억과 전망』(2004,가을)에 게재된 논문 내용을 인용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대학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협동조합에서는 10월 9일 한 글날을 맞이하여 전 조합원 축제를 금정산 산성에서 실시하였다. 이 때의 분위기는 대단한 열기였다. 양서조합원의 의지와 힘과 열정을 축제로 모아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시너지로 모인 기를 마음껏 발산하였다. 이 당시 MBC에 근무하던 하수근 조합원의 역할이 컸다고 기억된다. (이 때에 형사들도 우리 몰래 산성 막걸리를 배달하는 사람으로 변장하여 축제 분위기를 정탐하였다는 후문도 들었다.)

이상에서처럼 우리 부산양서조합은 창립이후 꾸준히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당국의 감시와 간섭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양심적 지식인과 민주적 청년 학생들을 결집하여 왔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16일, 그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10월 16일에 부산대학교에서 10시경 시작된 교내 시위가 민주항쟁의 불길이었다. 순식간에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4,0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그 이후 당시 부산대학교 운동장을 운행하던 18, 19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왔다. 오후에는 애초에 부산역에서 모이기로 했으나 경찰에서 제지하자 당시의 중심가인 중구의 광복동·남포동·국제시장·대청동으로 진출하였고, 동아대도 나중에 합세하였다.

오후 늦게는 회사원·노동자·상인·종업원·재수생 심지어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까지 합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벽녘까지 계속되면서 파출소가 파괴되는 등 과격화 양상으로 번졌다. 남포동·광복동·국제시장의 상인들은 이들 시위대에게 박수치며 먹을 것을 주기도하고 숨겨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각본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책방에 찾아온 조합원 시위대 학생에게 우리의 목적은 민주화 요구이니 무리하지 말고 몸조심하면서 하라는 정도의 조언을 하였다. 이 같은 민중들의 시위 항쟁은 4월 혁명 이후 처음이었다.

17일에는 더 많은 파출소와 경남도청, 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당시만 해도 시위가 자연발생적이었고 지도부는 없었다. 자연발생적으로 번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신나는 마음으로 응원하였다. 부마항쟁의 이 같은 자연발생적인 시위이후 부터는 지도부가 생기면서 시위도 전술적·전략적·조직적·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8일에는 예상했던 대로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군이 진

주했지만, 오히려 민주화 시위는 마산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면서 마산에서도 검찰청, 법원, 공화당사, 마산 MBC, 파출소 등이 파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밤늦게 까지 통행금지 연장이 발표되면서 시위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부마항쟁’이란 역사가 된 것이다. 이 항쟁은 국민들에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박정희 종신 독재체제를 일방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화하려는 유신 통치 체제에 대한 거부를 몸으로 나타낸 민중들의 거대한 함성이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힘찬 축제였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1980년 1월 28일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부마항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한겨레21』52면, 제782호, 2009. 10. 26).

부마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본 바 있습니다만 민란의 형태였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시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봉기로서, (중략)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 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정보를 책임진 자가 부마항쟁이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이 없는 순수한 일반시민에 의한 민주항쟁이라고 가장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보충서〉에다 고백했다.

이 같은 중앙정보부장의 보고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역정을 내며,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자마자 차지철 비서실장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 대원 100만~200만 정도 죽인다고 까닭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같은 〈항소이유보충서〉에 쓰여져 있다.

불안한 사회적 상황이 지속되는 소강상태에서 10월 26일 밤, 이 같은 권력 내부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부산·마산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비상계엄하에서 계엄 당국은 11월 19일 협동서점의 이사회의를 강제로 열도록 이사장에게 압력을 가한 후, 그 회의에 정보부 파견자를 배석시켰다. 회의 중에 해산 결의를 발제자가 반대하자 배석자는 신상에 좋지 않다는 언질까지 하였다. 그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해산 결의를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본인은 국세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으로부터 협동서점 운영에서 회계상의 비리 여부 확인을 위한 장부까지 꼼꼼하게 조사받았다. 해산이 결정된 후 전후 사정을 설명한 편지와 함께 반품할 책을 각 출판사와 도매상에 보냈다. 몇몇 곳은 결제도 해 주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 출판사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다.

양협의 조합원은 기독교와 가톨릭 중심의 한계를 넘어 교사·회사원·주부·일반시민 등 폭넓은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79년 10월 현재의 조합원은 (내 기억으로는 60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됨) 572명에 이르렀고, 그 출자금이 700만원이 넘고, 운영도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희망의 시기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¹⁰⁾

3. 해산 이후

부마항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그들이 눈도장 찍은 민주인사들을 계엄을 선포한 18일 이후 대공분실에 데려가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지면서 “산 박정희에 의해 잡혀간 인물들이 죽은 박정희 덕택에 살아나오게 되었다.”

이후 신군부인 전두환 5공 세력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을 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뒤 불안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광적인 수사를 준비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10) 이 통계는 부산민주운동사 398쪽을 인용한 것이다. 앞의 501명으로 나온 통계는 9월의 통계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실별한 시대에 무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 있는 것이 신변상 그래도 안전하다는 주위의 권고와 판단에 따라 대연여중(현, 해연중)의 선생이 되었다.

예상대로 전두환 정권은 부마항쟁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한 양서협동조합의 주요 인물들과 부마항쟁 당시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인물들을 뿌리 뽑기 위해 1981년 6월부터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그것이 이후 시나리오로 조작하여 강제로 만든《부림사건》이었다. 아무런 사건도 일으킨 일이 없는 민주화 세력을 반국가 조직인양 죄과로 몰아 운동권으로의 형성을 미리 차단한 싹쓸이였다.

그것은 당시 우리 사건 외에도 광주 의 햇불회 사건, 공주의 금강회 사건, 대전의 이람회 사건 등이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만들어진 사실, 그리고 동일한 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재심판결 결정에서 알 수 있다. (어쨌든 본인은 81년 8월 1일 잠깐만 조사받으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영장 없이 임의동행되었다가 부림사건으로 1심에서 7년 구형에 3년 6월 언도를, 2심에서는 2년 6월 언도를 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기각되었다. 그래서 2년을 복역한 후 198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월 13일 출소하였다. 최근 다른 유사한 사건들은 국가보안법까지 재심판결을 받았는데, 우리 사건은 국가보안법은 제외된 채 재심을 받게 되어 형이 2년 6월에서 1년으로 감형된 상태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기한이 없어졌지만- 대학원 논문 쓰는 기한도 감옥에서 넘기게 되었다.)

이후 변호인단이 꾸러지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노무현 변호사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보강되었고,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지면서 반정부 운동은 파쇼군사독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저항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민주화 투쟁은 점점 고양되고 전국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1차와 2차로 모두 16명이 연행되었다가 통닭구이 등 갖은 고문으로 조작되어 부림사건이란 이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서로 몰랐던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구명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서 관계가 친척처럼 가족처럼 변해갔다. 그러면서 “구속자 석방하라”는 호소문과 경찰서 앞에서의 시위, 법정 마당에서 현수막 항의,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등을 하면서 민주화실천가족 모임이 되었다. 이 모임을 앞장서서 이끌고 활동한 사람은 ‘아우성’으로 유명해진 송세경의 부인인 구성애와 최준영의 부인인 홍잼마였

다. 그 후 이 모임은 <전국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와 연대도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운동을 내재했던 부산양서협동조합이 강제 해산당하면서 부산에서는 각기 노동, 빈민, 공해 등, 전문 운동권 단체로 분화되면서 발전해 나갔다. 예로 공해문제연구소에서 시작된 부산환경운동연합도 그 운동선상을 이으면서 나타났다. 이처럼 양서협동조합은 민주화 운동이 각각의 운동권으로 커 나가는데 자궁 역할을, 못자리 역할을, 중개소 역할을 한 것이다.

양서협동조합은 비록 강제로 해산 당했지만 그 정신은 길게 이어지고 있다. 해산이후 양서조합을 아끼고 사랑하던 조합원들이 보수동에 있던 애린유스호스텔에서 금요일마다 모여 스타디를 하면서 재기를 위한 기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개인적인 만남으로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진보 성향의 각 사회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학가에는 사회과학 서점의 번창으로, 88년부터 각 지역에서는 양서조합의 변형인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한 도서관 운동으로 번져가기도 하였다. 같은 부림사건의 담당자인 전중근이 처음으로 만든 아름도서관은 서면 부전동 시장 입구에 있었고, 이어 햇살·광장·늘푸른 도서관 등이 생겨났다. 이들 도서관은 주로 지역 주민 및 대학생,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의식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환경과 참교육 등의 운동에 주부들이 앞장서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 가지 못하고 말았다. 시스템에 자가발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4. 평가 및 제언

동양권 대부분의 나라가 세계 역사의 이정표 중에서 유럽의 역사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神) 중심의 문화를 인간(人間) 중심의 문화로 새로운 문화의 신기원을 일으킨 르네상스다.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유신독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서슬퍼런 “긴급조치 9호”라는 법 아닌 법으로 인권을 탄압하던 시대여서 민주화 요구는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다. 그래서 양서협동조합도 책을 매개로 한 문화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우리식의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그러나 시대가 암울한 독재시대이다 보니, 사막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신기루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오아시스가 더 그리워지듯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십전십은 지하의 물처럼 교회 청년회에서 시민 사회단체에서 대학가에서 서로를 부르고, 찾고, 만나고자하는 분위기가 긴 잠에서 깨어나면서 스스로 형성되었다.

그 즈음에 몇몇 기독교청년을 중심으로 이 같은 만남의 장을 종합적으로 이룬 곳이 지금까지 설명한, 세계 최초(?)의〈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이었다. 이〈양서협동조합〉에서 ‘협동서점’을 설립하자마자 좋은 책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모이게 되었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시대의 모순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에 가장 알맞은 〈양서(良書)〉라는 책과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새로운 사회 창출의 힘을 시스템으로 내재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환상의 콤비로 결합되면서, 시대적으로는 가장 비민주적인 유신 독재체제와 적대적으로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양서조합은 유신체제하에서 거미줄 같은 감시망과 독재 권력이 심어준 공포감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과 단절돼 있던 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이 만나는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시행한 조합원 교육, 조합원 내부의 소모임, 외적인 공개 강연 등은 성격상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시켰고, 나아가 내부로 퍼진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발화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깨우침은 협동조합 정신을 통해 소모임으로 서로의 생각을 소통·순환·공유하게 되면서 분산된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진리를 향한 쓰나미 기운이 양서조합을 통해 대학가와 기독교청년회에 조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쓰나미는 어느 날 성경에 “믿음·소망·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당대의 시대정신에서는 ‘경제성장·문화창달·민주화, 그 중에 제일은 민주화’라는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부마항쟁이었다. 애초에 목표삼은 르네상스적 성격의 민족 문화 창달은 정치적 민주화라는 시대적 당면 과제를 긴급하게 맞게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역사적으로 뒤로 밀린 것이다.

부마항쟁이 촉발된 외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8월 11일의 YH사건과 10월 4일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 결의안이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항쟁으로 추동해 낸 그 내재적인 힘은 직·간접적으로 양서협동조합의 영향이 컸다.

4·19의 정신을 이은 이 자유·평등·정의의 정신을 내포한 부산·마산 항쟁은 이후 민주주의 역사에서 핵분열처럼 퍼지고 번지면서 5·18 광주항쟁(1980) → 6·10 전국항쟁(1987) → 군정 종식(1993) → 국민의 정부(1998) → 참여 정부(2003)로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미완의 벽을 넘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뿌리내린 오늘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양서조합은 비록 강제 해산 당했지만, 민주주의 씨앗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군정 종식 이후 사회는 형식적 민주화에서 보다 내용적인 민주화를 담아내기 위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체제 중심의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내용 중심의 <사회적> 민주주의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참여자치 등), 경제(경실련 등), 환경(환경운동연합 등), 여성(여성유권자연맹 등)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는데, 부산에서는 그 중요 인맥들이 양서조합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경제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정신은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다. 성장과 더불어 분배를 강조하고, 사치보다는 절제를 우선시하고, 자유보다는 자율을 선택하고 풍요보다는 청빈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이 토착화될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루는 진정한 선진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아쉬운 것은 협동조합 정신의 기저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10·26 계엄하에 강제 해산 당하면서《양서협동조합》의 우리식 문화 창달 정신은 싹 트다가 무지막지한 불도저에 의해 파헤쳐지면서 거덜나고 말았다. 미완의 르네상스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족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지금에 와서 그 시대정신은 자연스럽게 또한 당연히 지

속가능한 환경과 문화창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30년 전 부산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문화의 신기원을 꿈으로 품으며 서울·마산·대구·울산·원주·광주 등 전국으로 급속히 퍼져가던 그 한국판 르네상스의 아름다운 싹이 아쉬워진다. 오늘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양서협동조합>은 유신체제 말기의 짧은 기간에 존속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잔혹하게 진압된 광주 민주 항쟁의 그늘에 가려서인지, 아니면 YS의 삼당 야합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동안 민주화 운동사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관련 자료도 당국의 탄압으로 압수되어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87년 6월 항쟁이 없었더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이 나올 수 없었듯이, 부마항쟁 없이 10·26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은 지금까지 평가절하되고 있고, 그에 따라 양서조합의 역할도 묻혀있다. 이번 부마항쟁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적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기를 바란다.

지금 생각해도 수많은 단체에서의 활동 중 이보다 아름다운 인간관계, 의미있는 활동, 보람 있었던 경험은 지금까지 없었다. 생뚱쭈베리의 말대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짝이고 있을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별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찾았으니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진리의 역사를 자유·평등·복지, 나아가 환경과 생태 속에서 새롭게 찾아나서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기(氣)를 넣어주고, 잠재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아가 인류의 염원이 담긴 객관적이고도 주체적인 세계문화를 창달하는 인재들을 오늘의 시대에 맞는 신(新) 양서조합운동으로 형성해 내는 일이다. 이번의 재조명을 통해 탄력을 받아 600 여년 전 유럽에서 있었던 휴머니즘을 ‘생태-휴머니즘’으로 넘어서는 신르네상스 운동이<<신양서협동조합>>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 세계 100만 이상이 넘는 도시마다 생겨나 생태-휴머니즘을 위한 월드웨스티벌도 동시에 함께 해보는 꿈도 꾸어 본다.

그런데 부마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사단법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양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짊어지기로 다시 키우기 위해 (가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한다. 매우 뜻 깊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 명칭에 대해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민주' 라는 단어이다. 그 이름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한물 간 구태의연한 이름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약하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생태-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명칭에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일치하는 희망이 반짝이는 이름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그 이름에 궁극적인 호기심을 일깨워주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신명나는 행동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그 명칭 속에 내재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파리 날리는 건물로 박제화될 것이다.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어쨌든 양서협동조합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생태-휴머니즘' 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이 다시 뭉쳤으면 좋겠다. 아직도 할 일 많은 나라 할 일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2

경남양서보급회를 돌아보다

박진해, 전 경남양서보급회 홍보위원장

1. 전사-70년대 마산지역 청년학생운동의 동향
2. 경남양서보급회
3. 양협보급회 그 이후

경남양서보급회를 돌아보다

박진해(전 경남양서보급회 홍보위원장)

1. 前史-70년대 마산지역 청년학생운동의 동향

3.15와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돌려 세운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시대가 개막된 이후 3선개헌과 10월유신을 통해 박정희 영구집권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4.19 직후 마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졌던 각종 사회운동은 완전히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통일운동·교육민주화운동·혁신정당운동·양민학살 진상규명운동 등을 주도해 온 운동가들은 대부분 구속되거나 탄압받아 강요된 침묵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60년대에 이어 70년대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쿠데타정권의 직접적인 탄압을 모면한 일부 사회단체 간부와 자유당 잔존세력, 민주당·신민당계 정당인들은 대부분 박정희의 공화당에 줄을 서게 되고, 장기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세도를 누린 박종규는 마산지역의 대학(경남대학)과 언론(마산 MBC, 경남매일)을 장악하고 문세광사건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마산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다. 이같은 배경속에서 급기야 경남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사실상 유신찬성데모에 동원되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유신정권 하의 마산지역 여론주도층들은 서울지역 유학생을 비롯한 일부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독재정권의 충실한 협조자 내지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체제에 대한 불평불만과 사적인 발언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몰아세웠던 반공법과 긴급조치가 맹위를 떨치는 속에서 일상적인 공포와 두려움으로 억압당해야 했던 일반인들의 어두운 70년대의 경험은 마산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6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마산지역의 산업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한일합섬과 한국철강이 가동을 시작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조성에 이어 창원 산업기 지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마산시 창원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외부에서 젊은 노동력이 마산으로 급속히 유입되었다. 실제로 60년대 초반 15만명 선이었던 마산인구는 70년대 말 38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이 가운데 중·고·대학생수가 3만명, 공장노동자수가 7만명에 이르러 젊은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인구의 53%가 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중졸학력에 견습공 신분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다수는 저임금에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택난과 교통난에도 쉽게 노출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치적 억압구조에다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노동문제와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70년대 마산지역의 상황이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청년학생운동의 맹아가 싹틀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 재경 마산학우회

그 새싹으로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것이 마산출신 서울 유학생들의 모임인 재경 마산학우회라 하겠다. 70년대 학생운동그룹을 형성한 한석태·설훈·한철수·황성권·주대환·서익진·박재완·박진해·김진식·감정기·김장희·김종철·우기동·송정환·정혜란·이명희 등이 재경 마산학우회를 통해 방학을 이용한 지역활동을 시작했고, 이들이 경남대 정성기·박재석·전재영·이윤도 및 동아대 신용수 등과 연결되면서 지역 학생운동의 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각종 소모임과 학술강연, 연극·탈춤운동, 양서조합운동으로 맥을 이어가면서 경남대 최초의 이념동아리였던 '사회과학연구회'를 낳았고, 이 같은 운동의 자양분이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경 마산학우회가 처음부터 이 같은 운동성을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학우회에서 발간한 회지 『남도(南都)』 창간호(75년 2월)에 실린 연혁을 통해 살펴보면 재경 학우회는 65년 11월 조남규를 초대회장으로 창립되었으며, 창립 직후인 66년 1월 7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시정좌담회를 갖고 '경남도청 마산이전 촉진위원회 마산지역 개발 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틀 후인 9일에는 3·15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4월 10일 신입생 환영회를 여는 등 주로 순수한 애향심에 기초한 친목모임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하려는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경 마산학우회의 창립이후 75년까지 주요 연혁을 『남도』 창간호에서 발췌, 소개한다.

- 65년 11월 30일=창립총회, 학우회장 조남규, 부회장 김기철·유윤희
- 66년 1월 7일=시정좌담회(마산시청 회의실)
- 66년 11월 6일=제2회 정기총회, 회장 최규현, 부회장 권경중·구덕순
- 67년 2월 5일~12일=제1회 학우제(한성회관), 초청강연회, 음악회, 미술전, 시화전, 연극, 체육대회
- 67년 5월 27일=제3회 정기총회 및 신입생환영회(교육회관), 회장 박종우, 부회장 이학우·김미숙
- 67년 8월 1일~10일=제2회 학우제(3·15회관), 음악회, 연극, 지상문학발표회, 방송좌담, 마산시개발계획 청취
- 68년 4월 5일=제4회 정기총회 및 신입생환영회, 회장 이학부
- 68년 8월 1일~10일=제3회 학우제, 교도소 교양서적보내기, 음악감상회, 시민위안소
- 69년 4월 5일=제5회 정기총회 및 신입생환영회, 회장 조호제, 부회장 김성철·김영이
- 69년 8월 10일~15일=제4회 학우제
- 70년 7월 20일~31일=제5회 학우제
- 71년 2월 3일~6일=겨울밤의 잔치, 문학의 밤(한성예식장) 회원 및 학생·시민 250여명 참석, 심포지엄 '우리가 보는 한국사회' 200여명 참석
- 71년 3월 27일=제7회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신촌 로타리에식장), 회장 차철환
- 72년 6월 4일=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8대회장 윤창득, 부회장 하남근·구미화
- 73년 8월 19일=제9회 정기총회(마고 강당), 회장 오창환, 부회장 이수기·김치옥
- 74년 4월 5일=제10회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신촌 로타리에식장), 회장 한철수(고려대), 부회장 전영이(이화여대) 황동규(고대)

이처럼 재경 마산학우회의 초기 활동은 순수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간의 친목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한 체육대회나 음악회, 미술전, 서화전 등의 행사가 주류를 이뤘다. 이후 71년 '우리가 보는 한국사회 심포지엄, 72년 수출자유지역 일본인 문제와 관련 형사가상재판과 한일관계에 관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학우회 활동에서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성향은 74년 한철수(현 마산상공회의소 회장)가 10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좀 더 짙어졌다. 특히 74년은 설훈(전 국회의원)이 고려대에 입학하고, 박진해(전 마산 MBC사장, 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황성권(정치인)이 각각 연세대와 외국어대에 입학한 해였고, 한해 전에 입학한 주대환(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현 사회민주당의연대 대표)·서익진(현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박재완(전 성균관대 교수, 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감정기(현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서울대 이념서클인 한국사회연구회를 통해 학생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시기였다. 서울대 한국사회연구회에는 이미 이들의 4회 선배인 한석태(전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도 활동 중이었다.

특히 주대환은 이해 4월 민청학련의 유인물 등사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오다 8월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서울구치소를 거쳐 기소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멤버 중 한사람이었던 이상익(전 한국도로공사 감사)은 한양대 73학번이었다.

이 시기에 구성된 10대 집행부는 이전의 학우회 활동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우선 역점사업으로 학우회지를 창간하기로 하고 편집장 박진해(연세대 국문)를 비롯



학우회지 창간호 편집작업 - 김명숙, 유인자, 박진해. 1974년 겨울

해 조이수(서울대 인문계)·유인자(숙명여대 국문)·송정환(서울대 사회계)·김명숙(숙명여대 영문) 등 5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발간작업에 나섰다.

74년부터 준비해 75년 2월에 발간된 『남도』창간호는 편집후기를 통해 “본지는 이 고장 젊은 지성의 대변지가 될 것임을 지부한다”고 선언

했다. 『남도』는 이 선언에 걸맞게 당시로선 상당히 사회성이 짙은 특집 ‘후진국 민족주의’를 편성, 서익진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 후진국 민족주의’ 등 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박재완의 ‘파시즘연구’, 이봉조(서강대 외교학과, 전 통일부 차관)의 ‘민권의 역사적 고찰과 현실’, 3·15정신의 부활을 주장하는 박진해의 칼럼과 수출자유지역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 문제점을 지적한 송정환의 글을 싣는 등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75년 1월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학 개설계획을 세우는 한편 민족문학론의 대표작가로 거론된 김정한 작가 초청 학술강연회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정한 작가 초청계획이 여의치 못해 문학평론가였던 마산 교대(현 창원대) 정재관 교수를 초청, 마산가톨릭문화원 강당에서 처음으로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어 ‘한국근대화의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삼재(전 국회의원, 현 대경대 총장)·서익진·박재완·이봉조 등이 준비해 2월 5일 학술심포지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투표 실시 직전의 행사라는 이유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학우회는 또한 75년 2월 4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최재영 마산시장 및 기획실장과 만나 수출자유지역의 문제와 창원공단 이주민 문제, 사적과 자연환경 보호문제, 일본문화 침식에 따른 문제, 인구증가와 물질문화의 증대에 비례할 정신문화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2월 6일부터 사흘 동안 구두담이 등 직업청소년들이 집단거주하는 B.B.S 회관을 찾아 이들과 자리를 함께 해 특강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학우회지 창간작업과 학술행사 준비작업에 적극 참여한 이들은 학우회를 보다 진보적인 성격으로 개편한다는데 의기투합해 재경 마산학우회 11대 회장에 서익진을 내세우기로 하고, 당선에 필요한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우선 서울대 동문회장에 김진식·연세대에 박진해·건국대에 김장희(현 마산상의 부회장)가 각각 동문회장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다.

11대 회장에 선출된 서익진 회장은 취임 후인 7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사관의 비판과 그 극복’이라는 주제로 마산 회예식장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진해·손신기·감정기·최낙



재경 마산학우회 광복절 심포지엄 - 희예식장
1975년 8월 15일



강만길 교수 초청 동계학술강연회 - 마산 가톨릭
문화원 강당. 1977년 1월

경·허원 등이 연사로 나왔고, 서익진이 사회를 봤다.

이어 76년 1월에도 가톨릭문화원에서 연세대 한태동 박사를 초청, '민족문화 창조를 향한 새 가치관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경남대 김계남 교수와 서익진·유병태·윤경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박진해가 사회를 봤다.

같은 학술강연회는 차기에도 이어져 77년 1월에는 분단극복 사학을 주창한 고려대 강만길 교수를 마산 가톨릭문화원으로 모셔왔으며, 78년 1월 21일에는 당시 해직교수였던 한완상을 초청해 '청년과 청년문화'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역시 장소는 마산 가톨릭문화원이었다.

(2) 현실인식 소모임 학습

재경 마산학우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대학생 가운데 일부는 공개적인 학우회 조직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변혁을 모색하기 위한 소모임 활동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75년 겨울부터 한철수·서익진·박진해·김종철(고려대 법학과 75학번) 등 자연스럽게 뜻이 통한 선후배들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온 소모임은 76년 30명 가까운 회원을 가진 모임으로 확대됐다. 당시 소모임에 참여했던 멤버들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 : 송정환 · 허원 · 차양호 · 이호철 · 신권철 · 신종신 · 오진환 · 옥영보 · 이명희 ·
박정좌 · 김진식 · 서익진 · 김준
- 연세대 : 박진해 · 배기룡 · 변효순
- 고려대 : 한철수 · 장동훈 · 김종철 · 김영조 · 김상진
- 성균관대 : 우기동 · 이문봉
- 이화여대 : 정혜란 · 송은희 · 김앨림 · 심경희 · 이민진

이들 외에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검거됐다 풀려난지 2개월만에 군에 징집된 주대 환과 역시 군에 입대했던 황성권도 제대후인 77년부터 이 소모임에 합류했다.

이들은 매주 한차례씩 서울에서는 중국집과 다방, 카톨릭회관과 수녀원 등에서 학습 모임을 갖거나 수련회를 했으며, 방학 때는 마산 가톨릭문화원 내의 로타리클럽이나 희 다방 등에 모여 철학 · 한국근대사와 노동운동사 · 경제 등을 학습하면서 비판의식을 키워나갔다. 당시 이들이 교재로 삼았던 책들은 조용범의 『후진국 경제론』이나 프레이리의 『폐다고지』, 파농의 종속이론 등이었고, 막 출간되기 시작한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도 주요 텍스트로 활용됐다.

이즈음 마산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사회과학 소모임에 경남대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소모임을 주도하던 한철수와 주대환 등이 마산지역에 근거를 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경남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77년 경남대에 수석 합격한 정성기를 접촉했고, 이에 따라 정성기(현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 부마항쟁기념사업회장), 최청호(현 경남대 정외과 교수)를 비롯, 박재석 · 이신모 · 윤기수 등이 이 소모임에 합류, 마산 월남성당 등에서 함께 학습을 시작했다. 당시 방위로 근무중이던 한석태도 가끔 이 모임에 참석했다.

한석태는 이후 경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야간부 수업을 받던 창원공단 노동자 10여명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이 소모임은 마산과 창원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이자 사회교육기관으로 76년 3월 설립된 마산가톨릭여성회관의 공간을 활용해 격주로 모임을 갖고 『전환시대의 논리』, 『노동자와 농민운동』 등을 교재로 삼아 학습과 토론을 계속했다. 학습 지도는 주로 주대환과 박진해가 맡았다.

이런 와중에 77년 5월 13일 서울에서 설훈과 서익진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전격 구속됐다. 혐의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합시위를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설훈은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나, 서익진은 졸업후 대통령 직속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촉탁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취방에서 유인물 복사작업을 해준 혐의로 그는 연구원에서 해직되고 3년형을 받았다. 주동자였던 설훈은 5년형을 받아, 이후 두 사람은 각각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서익진은 출소 후 곧바로 군에 징집됐다.

이들이 구속돼 있는 동안 서울과 마산지역 소모임 회원들은 설훈·서익진 돕기운동을 조직, 공판 방청과 영치금 및 책을 넣어주는 등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78년에는 1년여 공동학습을 진행해 온 소모임 회원들 중 정성기·박재석·이신모·최청호 등 경남대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경남대 최초의 이념서클이라 할 수 있는 사회과학연구회를 발족시켜, 활동을 시작했다.

(3) 연극과 탈춤을 통한 문화운동

학습소모임을 통해 재경 마산출신 대학생과 경남대생이 만난 것과 비슷한 방식을 통한 연극모임이 76년에 이루어졌다. 하영화(서울대, 현 아주대 수학과 교수), 김진식(서울대, 현 울산대 불문과 교수), 최낙경(성균관대) 등이 방학을 기해 경남대에 재학중이던 전재영(전 마산시 정책추진반장), 이윤도(현 부산삼정고등학교 교사), 김윤희·하효선 등과 함께 마산학생연극회를 결성했는데, 여기에는 신용수(동아대, 전 마산MBC 국장)와 마산간호전문대, 경상대 일부 재학생들도 동참했다.

마산학생연극회는 창립공연으로 엘리베이트를 공연한 이후 신용수·하영화·김진식이 번갈아 연출을 맡아 가면서 주로 마산카톨릭문화원 강당이나 경남대 원월강당에서 '보이체크', '태풍정보', 반극 계열인 '수업', '관객모독' 등 네편의 번역극을 공연하고 창작극으로 '옛날옛적에 휘어이 휘이', '엘리베이트' 등 두편을 무대에 올리는 실험적이고 참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회원들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해산하게 되었다.

마산학생연극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작업해 오던 경남대 회원들도 독자적인 조직을 추진한 결과 이윤도·정석수·장해근·현태영·김태성·김윤희·김윤자·박유진·분종근·김경선 등을 창립멤버로 해서 역시 76년에 경남대 극예술연구회를 결성했다. 창립 이후 극예술연구회는 번역극으로 '코르자크와 그의 고아들', '만리장성', '느릅나무 밑의 욕망' 등을, 창작극으로 '깡인들의 축제', '돼지꿈', '유랑극단' 등으로 이어지는

공연작품을 활발히 무대에 올렸다. 특히 초창기 연출을 도맡다시피한 이윤도는 사회성 짙은 작품을 자주 선보여 지역문화계에 신선한 자극을 던져주곤 했다.

마산학생연극회에서 활동한 신용수는 76년 개관한 가톨릭여성회관의 조현순(후일 가톨릭여성회관과 창원여성의 집 관장 역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의 공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여성회관 소속극단인 불씨극회 창립에 참여했다. '연극작업을 통해 보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동료들에게 인식시킨다'는 창립취지가 보여주듯 연극을 통한 노동운동에의 기여를 염두에 두고 결성된 불씨극회에는 문병학·김경수·원종식·천정식·박영주·이진순·성은숙·권옥희·박경숙 등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 한일합섬 노동자와 일부 직장인이 참여했다. 불씨극회는 77년 11월 창립공연으로 '철부지들'을 무대에 올린 이후 '결혼', '정복되지 않은 여자', '우리읍내' 등 많은 공연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79년에는 극회 불씨촌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해 12월말 경남대 극예술연구회와 공동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을 신용수 연출로 3·15회관에서 공연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이 공연은 부마항쟁으로 구속돼 있다 석방된 정성기, 최갑순, 옥정애 등과 옥바라지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관람하면서 80년대를 준비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5년 경남대 국어교육과를 중심으로 탈춤운동이 시작되었다. 차성환·박능출·박노현·김연경·김태순·문정숙·김은환·송승환·황경애·배광한·김성환·안규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영오광대'를 전수받아 76년 10월 첫 발표공연을 가진데 이어 12월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산오광대' 전수회관에서 동계연수를 갖기도 했다.

평소 탈춤운동에 관심을 갖고 마산오광대 복원방안을 모색해 오던 박진해는 이들과 접촉을 갖고, 마산학생연극회 구성원과 학습소모임 일부도 참여시켜 77년 2월에 마산오광대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원추진회는 기금도 마련하고 당시 마산시내에서 거의 사라져 버린 지신



밧기를 새롭게 되살릴 목적에서 구정을 맞아 설맞이 지신밧기를 마산일대를 돌면서 실시했다.

그러나 유신지하에서는 대학생들의 이 같은 활동마저도 불온시되던 분위기여서, 경찰의 방해로 당초 이틀로 계획되었던 지신밧기마저 2월 19일 하룻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국어교육과 탈춤반은 문호를 다른 과로도 개방해 경남대 전통예술연구회로 개편해 발족시키고 ‘통영오광대’, ‘가산오광대’, ‘동래야류’ 등의 전통탈춤과 창작마당극을 신입생환영회나 축제를 이용해 공연했다.(‘마산오광대’는 전통예술연구회 출신으로 현재 선유풍물굿연구소장으로 있는 이중수의 끈질긴 집념에 힘입어 30여년이 지난 2008년에 40여명의 회원을 규합해 다시금 복원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원형복원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경남양서보급회 집현전의 전개과정

(1) 창립경위

78년 6월경 김진식과 박진해가 함께 하숙하고 있던 서울 신림동으로 이광두가 찾아왔다. 이광두는 두사람의 마산고 1년 선배로서 고교졸업후 바로 한국철강에 입사해 철강노동자로 일해 왔던 터였다. 박진해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김진식과는 마산 완월성당을 같이 다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찾아온 목적을 밝히면서 이광두는 이제 한국철강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 이런저런 수소문을 해 보았는데, 마침 부산에서 양서조합운동이 일고 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움직임이 의미도 있고 전국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마산에서 같이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마침 박진해는 이해 8월 졸업예정으로 있었고, 김진식은 이듬해 2월 졸업예정이라 졸업이후 진로문제를 두고 마산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던 터라 곧바로 함께 해보자는 것으로 의기투합되었다.

우선 서울에서는 한철수·주대환·황성권·하영화 등과 상의를 시작하고, 7월초 마산으로 내려와서는 이윤도·정성기 등과 협의하면서 회원모집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과 함께 앞서 거론된 재경 마산학우회 선후배와 학습소모인, 연극 및 탈춤 문화패에다 원월성당과 이광두의 주변인물 등을 중심으로 취지를 설명하며 규합에 나선 결과 1달여만에 100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회칙초안 등을 마련한 이후 8월 12일 오후 6시 30분 마산YWCA 강당에서 모두 5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회원들이 회칙초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주요사항을 하나하나 확정지었는데, 명칭은 경남양서보급회로 하되 경남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을 병행해 사용하고 직영서점은 집현전으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목적은 양서의 보급과 독서활동을 통해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회원과 일반 이용자의 양서 구매를 위한 제반시설의 설치 운영
- 회원에 대한 도서대출사업
- 사회봉사사업
- 장학사업
- 문화예술사업
- 독서인구 확대 및 악서추방사업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 매 회계연도마다 직영서점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대출도서 확보금으로 하고
- 역시 10% 이상을 사회문화사업비로 확보토록 규정해 양서보급회가 단순한 서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조직은 회장, 총무, 감사로 이루어진 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는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회장에 이광두, 총무에 윤성도(경남산업전문학교), 감사에 김진식·최향이(마산세무서 총무과) 등이었고 4개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홍보위원회: 박진해(위원장, 연세대 국문과 졸)·한옥진(경남대 사학과)·박애련(경남

대 미술과)

- 양서선정위원회: 정성기(위원장, 경남대 경제학과) · 주정숙(창원여중 교사) · 장미영(경남매일 교열부 기자)
- 도서운영위원회: 이혜란(위원장) · 김경옥(경남대 도서관 사서) · 정현섭(경남산업전문학교)
- 사회문화위원회: 유위종(위원장, 한국감정원 마산지부) · 김정희(건국대 화공과 졸) · 이정화(마산YWCA 간사)



집현보를 들고있는 이광두회장과 윤성도총무, 박진해홍보위원장. 1978년8월

이같이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이광두회장이 마산시 장군동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를 직영서점 용도로 임차하면서 양서보급회 집현전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주요활동 상황

창립총회 이후 이광두회장은 조직을 통괄해 이끌면서 본격적인 직영서점 운영을 위한 지금마련에 골몰했으며,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세워 활동에 임했는데, 홍보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매달 1차례씩 회보를 발행하기로 했고, 양서선정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권장할 추천양서 목록을 만들면서 주요추천도서는 서평이나 독후감을 작성해 회보에 실기로 했다. 도서운영위원회는 도서대출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대출용 도서확보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장도서를 기증받거나 일시 기탁받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회원당 가입금 2,000원씩을 모아 대출용 신간도서 구입에 힘썼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부산, 대구, 울산 등 타지역 양서조합과의 교류와 회원 대상의 강좌나 문화행사를 마련하는데 몰두했다.

이에 따른 가시적인 모습은 8월 20일자로 발행된 14쪽 분량의 회보인 『집현보』 창간호(회보는 이광두회장이 일일이 필사를 해 마스터인쇄를 했다.)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다.

“지난 시대에 당대 지성의 집결처로서의 집현전이 있었다. 여기서는 폭넓은 독서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활기찬 토론이 전개되었다. … 그 성과는 강한 민족적 성향을 띠면서 광범한 민중지향적인 훈민정음 창제로 대표되어 나타났다. …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난날의 집현정신을 새로이 이어받고자 한다.”

박진해가 쓴 ‘비판과 창조’의 집현정신’이란 제목의 창간사는 이어 마산 시민의 항일운동과 3.15의거의 저항정신을 소개한 후 당시 마산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양서보급회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있다.

“경제건설에 따른 고도성장을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총매진하는 과정에서 이 고장은 많은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술한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급격히 팽창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저임금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방 이른바 호화맨션 아파트와 유흥접객업소의 현저한 등장을 목격한다. … 더 이상 뿌리를 뽑힌 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고장의 부끄러운 전략을 방지해 둘 수만은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다소 포괄적인 내용의 창간사와 더불어 김진식이 작성해 실은 발기문 ‘첫걸음을 내디디면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코 거창할 필요는 없다. 정도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 우리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어우러져, 올바른 인간생활의 지침을 찾아 삼고자 한다. … 읽을만한 책, 필요한 책들을 서로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고, 좋은 책을 싸게 구매하고 그 이윤의 일부로 우리사회의 문화예술사업에 기여하며 원활한 대출사업의 운영 등으로 양서읽기 운동을 제도적으로 확대시키고 차차 뜻을 넓혀 나가 인간다운 삶의 원기와 정신을 같이 갖자는 데에 우리 회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서보급회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양서선정위원회가 가려뽑은 28권의 추천양서 목록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백낙청 저)』에 대한 서평을 싣고, 창립총회



에서 확정된 회칙을 실었다.

여기에는 8월 15일까지 참여한 회원명단을 이름과 소속 또는 직장을 함께 명기하면서 소개했는데, 모두 128명에 이르렀다.

직영서점 개점이 자금문제에 부딪쳐 늦추어지는 가운데 핵심사업인 도서대출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 드디어 9월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날자로 발간된 20쪽 분량의 『집현보』 2호(홍보위원회의 한옥진 위원이 직접 필사)에 따르면 회원들이 기탁한 대출도서 목록으로 김진식·주대환·한철수·박진해·정성기·백승태·이광두·한옥진·윤성도·주정숙·김종철 등이 내놓은 262권에다 회원들에게 받은 가입금으로 양서선정위원회가 구입한 7권이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에 대한 정성기의 독후감과 김종철의 『나 세르와 아랍혁명』 서평과 함께 대출도서 가운데 9권을 골라 각각에 대한 짧은 소개글을 실었다.

특히, 『집현보』 2호부터는 마산의 역사, 지리, 풍속, 사회, 문화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취지 아래 마산문화사 연재가 시작되었는데, 첫 순서로 박진해가 정리한 '마산의 개항'이 실렸다.

그리고, 창립 이후 1달 가까이 회원 배가운동에 나선 성과로써 추가 참여한 신입회원 명단으로 모두 42명이 소개되었다.

도서대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과 함께, 양서보급회가 자리 잡은 위치가 여러 고등학교 등하교길이다보니 남녀고등학생들도 자주 들러 책을 빌려가고 싶어했다.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준회원제도를 두기로 하여 고등학생들의 동참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참여 확산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다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영어, 수학, 한국근대사 등 세 무료강좌를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0월 15일 오후 7시 집현전 인근에 있는 소화보육원 강당에서 전체 회원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

에는 40여명이 모여 강좌개설에 동의하고 강좌진행방법과 일시를 결정했다.

영어과목은 로버트 프루스트의 전기인 『The Aim was song』을 교재로 김종철이 강독을 맡기로 하고, 수학은 하영화가 『수학Ⅱ의 정석』을, 한국근대사는 박진해가 『한국사 신문』과 『한국통사』를 교재로 해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21일부터 강좌가 시작되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영어와 수학강좌에 참여가 저조하여, 집현강좌의 성격을 일반교양강좌 형태로 발전적으로 전환시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하우저)』, 『한국노동문제의 구조(안병직 외)』 등을 교재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고, 여기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휴머니즘적 접근’(박재석), ‘리얼리즘 문학소고’(황성권), ‘분단의 역사적 배경’(박진해) 등 한국 근대사와 노동운동 등에 대한 토요 발표회도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별도로 마련되어 『인격의 자유화를 위한 서장(김행자)』,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등을 교재로 매주 일요일 오후 소화보육원에서 세미나를 계속해 나갔다.

20쪽으로 된 『집현보』 3호(한옥진·이홍점 필사)는 10월 30일자로 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에 대한 정성기의 서평, 『제8요일』을 읽은 이홍점의 독후감이 실렸고, 회원들이 추가로 기탁한 도서목록으로 하영화·이운도·이홍점·박미연·김경옥·여희·하효선·김경혜·이혜란·이효경·김미리·박건태·박애련·이화주 등이 내놓은 171권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대구양서조합이 기증한 『분노의 계절』, 『스피치와 리더십』 2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한국근대사 강좌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집현전에 비치된 대출도서를 중심으로 참고도서와 논문을 가려뽑아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연재 마산문화사 두 번째 순서로 박진해가 쓴 ‘일제 때의 항일운동’을 실었고, 10월 24일까지의 신입회원 명단 52명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는 마산고와 마산여고생들인 준회원 10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까지의 참여회원은 모두 222명으로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이어서 노동자와 회사원, 공무원과 교사, 자영업자 등의 순으로 되어 있고, 연령대는 20대가 대부분이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양서보급회의 활동은 직영서점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광두 회장이 개설자금을 끝내 확보하지 못해 서점을 포기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12월 30일에 임시총회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열성회원 대다수가 아직 학생이거나 새내기 직장인인 상태에서 서점개설자금을 모으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임시로 임차한 점포는 비워주어야 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하는 선에서 임시총회를 마무리했다.

79년 1월로 접어들자마자 회원들과 함께 장소물색에 나섰다, 썩 월세 조건에 맞는 장소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1월 15일 마산 창동입구의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철로 건널목 옆에 월세로 내놓은 10여평의 창고건물을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다. 형편없이 낡아빠진 창고였으므로 연극하는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 무대장치하는 셈치고 쓸만하게 꾸며 보라고 주문했다. 이들이 밤을 새워 합판과 스프레트, 스티로폼과 벽지 등을 붙이거나 바르고 전기시설까지 끝낸 뒤, 1월 18일 서가와 책을 옮기는 것으로 집현전의 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

1월 22일자로 나온 24쪽의 『집현보』 4호(한옥진·이홍점 필사)에는 이전장소의 약도가 그려져 있고, 알뜰의 글에서는 이전 과정의 고충이 드러나 있다. 실린 글로는, 김종철의 논단 '에리히 프롬론', 우기동의 논단 '사회철학에 관하여'가 있고, 양서선정위원회가 고른 6권의 양서 소개글과 연재 마산문화사세 번째로 '마산의 지신밧기'가 실렸다.

회원들의 추가 기탁도서는 이문봉, 김일, 윤미란, 윤기수 등의 93권, 구입도서는 36권으로 이때까지 모두 570권이 회원들에 대한 대출용 도서로 비치되고 있었다. 78년 9월 25일 도서대출사업이 시작된 이래 79년 1월 10일까지의 도서대출 상황도 소개되었는데, 다독지는 박애련·윤성도·박진해·이홍점·이광두·김문하·이부옥·신재천·이명희·최병옥 순으로 해서 모두 97명의 회원이 448권을 대출해 읽었고, 많이 읽힌 책은 『장길산』, 『창작과비평』, 『객지』, 『제8요일』, 『머나먼 송바강』,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순으로 소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입회원은 준회원 6명을 포함해 20명이 추가되어 총회원수는 242명에 이르렀다.

장소 이전 이후 앞으로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1월 25일 소화보육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향후방향 논의, 회원자격문제와 의무규

정 등에 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그렇지만, 임원선출 문제를 두고는 생각이 갈렸는데, 이광두회장이 2선후퇴를 밝혔고 박진해홍보위원장은 3월 입대를 앞두고 있어 자칫 난파 일보직전의 양서보급회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하는 것으로 총회를 끝내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분위기 일신을 위해 1월 28일 설을 기해 지신밝기를 갖기로 하고 준비했으나 적절한 상쇠를 찾지 못한 데다 악기와 옷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회원들이 각자 명절음식을 집현전으로 가져와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대신했다.

2월 중순에는 마산 월남성당에서 당시 대표적인 저항인사였던 김지하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천주교측이 마련한 ‘김지하 문학의 밤’이 열렸는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 하기도 했다.

3월 3일 토요일 오후에는 함안 군북에 있는 조씨 제실로 1박 2일 MT를 떠났다. 김진식·이윤도·박진해·주원덕·박재석·정성기·우무석·차양호·하효선·박애련·한옥진·이부옥·여희숙 등 위기에 처한 양서보급회를 염려하는 열성회원들이 모여 밤을 세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내놓으면서 토론했다. 앞으로도 MT와 소모임 등을 지속하면서 생각을 교환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다가오는 3.15 기념일의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행사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5의거 관련 자료와 서적을 수집하는 등 각자가 준비작업에 나서 3월 15일 오전에는 회원 10여명이 의거탑 앞에 모여 꽃다발을 바치고 묵념을 하며 기념행사를 가졌고, 오후에는 항쟁참가자 맥을 찾아 당시의 회고담을 들었다. 이날 밤에는 김진식·박재석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3·15의거 추모 세미나’를 집현전에서 개최했는데, 등화관제훈련이 실시되는 바람에 창을 가린 상태에서 회원 20여명이 모여 단절된 3·15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벌였다.

(3) 경남양서보급회의 해소

3월 25일 마산 가포와 집현전을 오가면서 박진해의 입대 환송식이 열렸다. 이광두·

한철수·유위중·황성권·이윤도·서익진·김종철·박재석·정성기·하효선·박애련·이부옥·정혜란 등이 모였는데, 박진해의 입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양서보급회를 잘 이끌어 나가주기를 부탁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앞서 박진해는 우무석을 만나 『집현보』 편집을 맡아주기를 당부하며 1차 정리된 5호분 원고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현보』 5호는 끝내 나오지 못해 4호가 종간호로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도서대출사업과 소모임 형태의 세미나는 계속 이어졌으나 초반에 비해서는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6월말 훈련을 끝내고 해군소위로 임관한 박진해는 마산에서 진해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게 되어 양서보급회에 출입할 수는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냐는 회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7월 7일 임시총회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재정문제 등 현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고 그동안 회원들이 대출용으로 기탁해 준 책들은 다시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공식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약 1년간에 걸친 경남양서보급회의 유의미한 실험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3. 양서보급회 그 이후

경남양서보급회가 공식활동을 중단한 뒤에도 열성적인 회원들은 계속 학습소모임 형태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세미나와 토론 자리를 가졌다. 특히, 여성회원 대상의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해 온 이홍점·전윤희·한옥진·양민애·이금선화·이명희·이정화 등은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후속활동에 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마항쟁이 터졌는데,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항쟁동안 회원들은 혹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항쟁에 참여하거나 휩쓸려 들었다. 그리고, 회원 가운데 구속자도 많이 발생했다. 황성권과 김종철은 16일 병역문제 때문에 부산 서면 근처

에 있던 경남병무청에 들렀다 때마침 부산 서면일대를 누빈 시위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둘 다 여기서 잡혀 버렸다. 마산출신으로 서울서 대학을 다니면서 부산에서 검거된 이력으로 해서 갑자기 남민전과 연결된 부마항쟁의 수괴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공작의 대상이 되어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주대환은 78년 10월 서울에서의 시위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다 갓 풀려난 뒤 학교에서도 제적된 상태라 마산 자택에 머물고 있던 중 시내 중심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위상황을 관찰삼아 나섰다가 운나쁘게 검거되었는데, 수차례의 구속 이력으로 해서 주동자 취급을 당해야 했다.

정성기의 경우는 제대로 된(?) 구속자라 할 수 있다. 학습소모임을 거쳐 경남대 사회과학연구회를 주도했고, 양서보급회의 양서선정위원장을 맡아 많은 양서(반대편으로서는 불온도서)를 읽고 이를 회원들에게 권장까지 했으며, 실제로 9월부터 경남대 내에서 수차례 시위계획을 모의(?)했던 것이므로.

김윤희는 드러나지 않은 최대의 피해자였다. 시위에 적극 참여한 것도 아니었는데, 황성권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로 황성권의 취조팀에게 끌려가 짐승 같은 수사관들 앞에 발가벗기우고 무시무시한 공갈에 시달리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받아 풀려난 뒤에도 오랫동안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붉은 발열의 반점이 뒤덮는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정혜란 역시 황성권과 김윤희를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취조팀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회원 중 구속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모임을 갖고 있던 회원들은 구속자 돕기모임을 꾸려 활동에 나섰다. 회원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는 마산지역 구속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속자들이 풀려난 이후 양서보급회와는 인연이 없었던 정인권·박인준·최갑순·옥정애 등이 쉽사리 후속모임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남양서보급회의 회보 『집현보』 발간경험은 1983년 무크지 『마산문화』 창간의 원동력이 되었다. 주대환·서익진·박진해·김종철 등이 모여 추가로 합류한 김종석·박영주·이재업·이태수 등과 함께 펴낸 『마산문화』는 매년 한차례씩 4호까지 나오는 동안 마산지역의 독자적이고 지방자치적인 문화의 구현을 주창해 타지역으로부터도 큰 반향

을 불러 일으켰다.

공식 활동을 중단한 경남양서보급회는 끊임없이 이의 부활을 꿈꾸어 온 김종철에 의해 1988년 6월 25일 보다 발전된 형태로 새롭게 꽃피었다. 자금문제로 좌초했던 지난 경험을 살려 김종철이 종자돈을 만들고 지역에서 활동해온 선후배의 출자를 이끌어내 마산시 남성동의 60여평의 공간에 '민간도서관 책사랑'을 탄생시킨 것이다.

양서보급회와 같은 회원제 도서관 형태였던 책사랑은 당시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큰 호응을 얻어 개관후 6개월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 하루 평균 이용자 200여명에 대출량도 300권을 넘었으며, 1999년에는 2만권 정도로 장서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어 당초 양서보급회가 추구했던 이상이 현실속에서 가시화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경남양서보급회의 태동과 운영에 크게 기여했던 이광두씨와 김종철씨는 수년전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 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3
문답으로 풀어 본
울산지역의 양서협동조합운동

진영우, 전 울산양서협동조합 전무

문답으로 풀어 본 울산지역의 양서협동조합운동

진영우(전 울산양서협동조합 전무)

문) 울산양서협동조합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답) 30년 전의 일을 회고 하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와 마찬가지로 양서협동조합운동도 현대사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녀야 할듯하다.

예수 사후 30~50년에 비로소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말씀이 구전으로 전승 되든 것이 마가복음-마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예가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 울산양서협동조합은 이웃한 우리나라 양서협동조합의 효시인 부산양서의 영향을 거의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9년 7월 울산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울산지역에서는 선한 뜻을 품은 젊은 그룹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최초로 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양서협동조합이라는 의미 있는 운동을 접하곤 함께 꿈을 꾸게 되었다.

문) 창립임원은 누구로 구성되었는가?

답) 조합장은 치과의사인 김 윤영이 선출되었고, 부조합장은 당시 현대건설소장으로 울산에 근무하고 있었던 이석현(현 민주당 국회의원), 류상태(경남은행)이었고 양서선정위원장인 유재현(당시 울산대 교수, 전 경실련사무총장)이 역할을 했고 이사로는 정찬후, 이상목, 손영철이 맡았다.

실무책임자인 전무는 진 영우(현 울산민주시민회 상임의장)였고 간사는 강명숙이었다.

문) 울산양서의 주축세력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만들어 졌나?

답)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다.

울산지역 최초의 운동의 맹아요 시작이라고 할 만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부산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부산운동의 중심이었던 부산중부교회를 지주 드나들던 진영우, 윤운룡(현도투락식품대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장) 이 둘이 자연스럽게 부산양서를 알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 아 이거다 하곤 무릎을 치고 울산양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게 된다. 부산 중부교회와 부산양서협동조합의 세례를 받은 셈이다.

초기 운동의 출발이 거의 그랬듯이 어떤 의미 있는 모티브가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여 운동적 토대로 삼았다. 울산양서조합도 그랬다. 뭔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모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교육하고 조직하고 결사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을 찾고 있었는데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한다는 행태는 무척 매력적인 것이었다. 울산지역 초기의 운동적 모색이 바로 양서협동조합의 출범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없고 사회단체 하나 없고 대학이 일천한 지역에서 어쩌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흥사단 울산 고등학생 아카데미 출신인 진영우는 그 후배들을 끌어 들여 초기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으며 서울대 초기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었던 이 석현을 만나 천군만마를 얻는다. 이석현은 같은 학교 출신 가운데 울산공단에 근무하는 궤참은 사람 4~5명을 이끌어 낸다.

석유화학공단 어떤 공장에서는 고졸출신 뜻있는 젊은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기도 했고 양서선정위원장을 맡았던 울산대 교수 유재현을 비롯 몇몇 교수들의 도움도 있었다.

그 당시 유일한 운동체인 한국카톨릭농민회 경남회장 이었던 이 병철의 소개로 만난 영남화학노동조합 최현오(현 울산연합의장), 허동삼 두 분의 물심양면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문) 그 당시 울산의 운동 상황은 어떠한가?

답) 어떤 상황이라고 할 게 전혀 없다.

시대의 한계도 있었지만 울산은 공업도시로 인문 사회적 분위기는 전무했 으며 유

일한 대학인 울산공대 또한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전혀 학생 운동적 분위기는 없었고 의식 있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YMCA조차 없었다면 알만 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민주노조적인 노동운동 또한 그 맹아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양서조합은 출발했다. 야당적인 분위기가 있어 일부 야당인사들과 사람들이 소통하기는 했지만 운동적 이라기보다는 유아기적인 평범한 일반적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대현교회 등 좋은 교회가 몇몇 있기는 해도 이 또한 이러한 분위기와 흐름을 뛰어넘는 교회 운동적 요소와 토대를 미비하고 있었다. 울산지역이 야당적 요소가 강한 지역이고 공업도시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문사회학적 토대가 될 만한 대학이 늦게, 그것도 울산공대가 유일한 대학으로 설립되었으니 사회의식에 눈뜬만한 토대가 대단히 미약한 지역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문) 그럼 울산양서협동조합이 울산 최초의 운동의 시작이라는 말인가?

답) 그렇다. 본격적인 운동조직도 아니고 조합 형태를 띠, 너무나도 초보적인 모임이었지만 울산지역 최초의 운동적 맹아였다고 말할 만하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젊은이들이 모여 의식적인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사회문제에 눈을 떠가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중차대한 울산지역 변화의 씨알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양서-책이 매개가 되어 의식화 되어 가기도 했지만 의식적인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역할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울산지역에서는 현대역사 이래 처음으로 의식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어떠한 학생운동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교회운동 또한 부재였고 나아가 사회운동은 그 맹아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민주노조운동은 겨우 1987년에 와서야 그 씨알이 떨어지니 말이다.

문) 그 때는 울산지역에 아직 노동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답) 울산의 노동운동은 87년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부터니 한 참 후의 일이다. 노조가 있어도 거의 어용이었고 영남화학 등의 미미한 노조민주화 흐름 정도였고 현대그룹에서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던 시절이다. 울산 현대그룹 최초의 노조였던 현대엔진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예비의식화가 1986년으로 기억한다.

울산지역의 노동운동은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일어

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 울산양서조합은 조합원이 얼마쯤 되었나?

답)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창립 당시 조합원은 50여명으로 출발했으며 전성기 때는 대략 150명 정도로 추정된다.

홍사단 아카데미 출신, 울산대생 소수, 평범한 직장인, 타 지역 대졸출신 엘리트 일부, 교회청년 몇몇이 조합원의 주를 이뤘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엘리트 군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독서층이 많았으며 대부분 공단의 근로지중심도시의 성격상 조합원이 될 만한 토양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 울산양서는 주로 어떤 활동이 중심이었으며 사업은 무엇이었나?

답) 가장 중심적인 것은 취지와 목적처럼 좋은 책-양서를 공급판매하고 양서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때만 해도 금서가 많아 금서를 효과적으로 보급-판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공과대학 하나 밖에 없고 전혀 인문사회적인 분위기가 없는 공업도시에서 양서를 통한 의식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다른 지역은 교회라는 공간이 일정하게 젊은이들을 의식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조직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면 울산은 이것조차 전무한 상태였다. YMCA같은 사회단체나 공공도서관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면 말 다 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좋은 책을 매개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스스로 조직해 간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를 울산지역에서는 지닌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사회 운동적 요소가 집단적으로 강하지 못했고 독서를 통한 초보적인 문제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 진다.

어떤 프로그램중심의 활동은 미약한 대신 주로 독서토론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뤘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했으며 소모임으로 ‘근대사연구모임’을 운영하였다.

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점은 어떻게 운영했는가?

답) 서점은 “양서의 집”이라 명명되었고

울산시내 중심가인 옥교동 시계탑 네거리 버킹검2층에 조그만 책방을 열었다. 열성 조합원인 류호현의 친구 건물로 형식적인 소액의 집세를 내고 사용할 수 있어서 서점운영에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퇴근시간 이후면 조합원들이 모여 들어 아연 활기를 띄었고 모임과 사립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일단 모든 약속을 양서의 집에서 잡곤 여기서 모여 놀거나 토론하거나 하였고 그 이후 이어서 술자리 토론으로 연결되곤 했다. 울산지역에서는 뜻이 깊은 공간의 역할을 했다

문)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행했다는 말인가?

답) '울산양서' 라고 해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내용과 울산양서협동조합의 활동과 소식 그리고 회원동정을 전하는 간단한 소식지였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소식지라 해도 양서에 대한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일정하게는 정치-사회적 정세를 알게 되는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당시는 양서에 대한 출판소식과 금서여부 등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청년들은 주로 이러한 책을 통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는 계기를 갖는다.

문) '근대사연구모임' 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잘 운영되었는지 궁금하다. 스터디그룹의 성격을 가진 것인가?

답) 초보적인 형태의 소모임이었다.
그 당시에는 근대사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올바른 인식과 사회의식을 갖추는데 기본으로 되는 분위기였다. 사회과학적 인식과 실천의 초보가 된다고나 할까. 어떤 의미에서는 울산지역 최초의 스터디그룹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책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KSCF에서 발행한 근대사 팸플릿 책자가 교재였던 것 같다. 스터디그룹의 리더도 제대로 없이 조합원 스스로 운영했다.

문) 금서를 포함한 양서들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았나?

답) 처음에는 부산양서를 통해 공급받았고 많은 편의를 얻었다. 나중에는 광민사를 비롯한 몇몇 출판사와 직거래를 텃다. 부산양서의 물심양면의 도움은 울산양서가 출발하고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의 운동 상황은 금서를 읽는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금서를 중심으로 하는 양서의 보급과 독서 그리고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식적인 행위였고 하나의 사회적 운동에 해당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양서협동조합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전개 되었으리라.

문) 서점이나 조합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답) 기본적인 재정은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기본적인 의무출자를 하여 충당하였고 임원들은 출자를 당연히 많이 하여 기본재정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김 운영 조합장과 이 석현 부조합장의 고액출자가 원동력이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간사로 참여한 강 명숙은 회사 퇴직금의 상당액을 출자하여 가장 많은 출자를 기록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늘 운영자금은 어려워 실무자인 전무와 간사는 월급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거의 무보수였다. 출자에 대한 배당금은 고사하고 막판에는 출자금을 전혀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뛰어 넘었다.

문) 기억할만한 그 당시의 활동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해 달라.

답) 부산양서조합 주최의 여름수련회에 참가해 함께 어울리고 교류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것이 다 운동적 교류로 이어지는 법이었다. 울산양서조합 창립식에 축하사절로 참석한 대구양서의 김균식은 나중에 울산양서를 문 단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기연도 만든다.

아, 기억나는 재미있는 게 있다. 부산양서조합이 주관하는 여름농촌봉사활동이 울산 울주의 한 농촌에서 있었다. 바로 울산양서조합의 전무인 진영우의 고향마을인데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 몇 토막이 있다. 주로 부산대 학생이 주축이었는데 동네 마을회관에 걸려있는 박정희대통령 사진을 떼 내더니 박살내더라고 나중에 마을사람에게 들었다. 대학생들이 호기를 부리며 마을청년들에게 기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소주를 사발로 벌컥 벌컥 마셨다는 이야기도 기억난다.

그냥 농활만 했겠는가. 동네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풍물패가 등장하여 마을에 풍물을 잡았으며 조합장인 이홍록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도 있었다. 심지어 카톨릭농민회 분회를 만들려고 카농 경남간사 송세경은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문) 부산양서조합과 연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관계였는가?

답) 지리적으로 부산과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거의 부산양서의 울산브랜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책도 부산양서에서 직접 공급받았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운영노하우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산운동의 영향과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잊을 수 없는 인간적-운동적 연대였다고나 할까.

문) 그럼 전국적으로도 양서조합 끼리 연대활동을 했는가?

답) 다른 지역은 몰라도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왜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문) 운영하는 동안 공안기관-경찰의 탄압이나 방해는 없었는가?

답) 운동이 초보면 경찰의 정보력과 탄압도 초보다.
아직까지 운동력 있는 조직으로 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조그마한 책방정도로만 보았는지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탄압은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정도였다. 그러나 부산에서 부마항쟁이 발생하고 탄압이 휩쓸고 가면서 그 불똥이 울산에도 튈다. 그 여파로 울산양서는 문을 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문) 그럼 탄압으로 문을 닫았던 말인가?

답) 그렇다.
직접적인 탄압으로 문을 받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원인이 그렇다는 말이다.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부산의 유력한 민주인사들이 연행되고 하면서 중부교회의 최성목 목사도 구금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대구지역의 최초의 학생시위주동자의 한사람이었던 대구양서의 김균식이 울산으로 피신해 있다는 정보를 취득했던 모양이다. 사실이였다. 울산양서 전무였던 진영우의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던 것이다. 김균식을 잡기 위해 울산양서조합을 급습하여 진영우를 대구 공안분실로 압송한다. 그러나 다시 울산으로 압송돼 온 진 영우는 권총으로 위협하는 등의 협박을 당하면서도 기

지를 발휘하여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진영우도 놓치고 김균식도 놓치는 일이 생겼다. 화가 난 기관원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울산양서조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놓는다. 이로 인해 진 영우전무는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하게 되고 울산양서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문) 울산양서협동조합이 울산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

답) 운동의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비록 책-양서라는 인문학적인 매개였지만 이걸 결코 인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조직을 하게 된다. 지역운동을 정리할 때 반드시 양서협동조합운동이 주요하게 정당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운동의 출발이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되듯이 양서조합의 의식적-인간적 그물망은 운동을 배태하기에 매우 적합했다. 이런 의미에서 울산양서협동조합운동은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운동의 씨알을 뿌린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쾌거였다.

문) 울산양서조합을 회고하면서 현재적 교훈과 느낌은 어떠한가?

답) 3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역사에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30년 전의 그 일과 활동이 지금 현재로 가다 오는 느낌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비록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의식적인 인간으로 사회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다.

그때 열정적으로 사회적 대응을 했듯이 지금은 달라진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21세기형의 첨단과학사회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자본주의 그리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문명의 파고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은 공부를 새롭게 해야 하는 시대다. 이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은 다시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올바르게 참된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양서운동이 오늘날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부산의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인디고서원, 서울의 책 음악 우정이 있는 문화공간-길담서원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 당시의 양서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중년을 넘어 서고 있다. 그러나 초심의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살아 있으리라 믿는다.

이 양심들이 다시 발기하여 왜곡되거나 위기에 처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그리고 당당한 민족자주를 지켜내는 결사를 다시 해야 할 새로운 책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젊은 어른이어야 한다. 양서가 영원한 우리의 정신적 역사적 자산이듯이 양서조합운동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정신적 사회적 자산으로 남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4

대구양서이용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김균식, 전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 조합원

1. 들어가는 말
2. 결성과정과 전개
3. 주요 사업
4. 주요 구성원
5.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해산
6.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에 대한 소회

대구양서이용협동 조합운동에 대해

김균식(전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 조합원)

1. 들어가는 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계절의 변화가 주는 긴장감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 성찰에 잠기게 한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하고 교섭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부마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의 가을은 매우 무겁게 다가온다. 긴급조치 9호 시대에 반유신 민주화운동으로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념적 지평을 넓힌 양서협동조합운동에 대해 토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래에서는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결성과 그 전개과정을 기술한다.

기록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연관지어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엮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2.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결성과 그 전개

(1) 배경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을 겪고 난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은 대부분 체포, 구금, 수배, 사형 등으로 초도화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법살인의 충격과 실의에서 벗어나 운동 역량을 복원하고, 투쟁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경찰과 정보기관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유신독재의 종식과 민주주의 쟁취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학생운동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며 투쟁하였다.

- 경북대의 75년 한풍회와 현대사상연구회 시위
- 78년 1·2차 구국선언문사건과 가두시위
- 계명대의 76년 양심선언문사건
- 79년 연극반 탈출사건 / 유신반대 시위
- 영남대의 79년 '민주주의 장례식' 사건

등으로 정권퇴진, 유신헌법 철폐투쟁에 매진하였다.

- 사회운동에서는 76년~79년까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 농민운동에서는 77년 가톨릭농민회 대구교구연합회(대구가농),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안동가농) 결성 및 활동
- 79년 오원춘 사건
- 노동운동에서는 78년 아리아약기 인질농성사건
- 종교계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인권강좌와 산업선교활동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전개된다.

(2)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결성과정

야만적인 탄압으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었지만 새로운 인식 속에서 교육과 학습에 힘쓰면서 엄혹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구양협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던 경북대 한풍회 출신의 박명규 주도로 1978년부터 시작된다. 1975년 4월 경북대 시위사건으로 학교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박명규는 1977년 계명대학교 상경계열에 입학하여 시국상황과 조직 재건을 위해 활동하던 중 부산에서 양협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부산, 광주, 서울 등을 방문하여 활동상황과 구체적 조건을 청취하고 황철식(그 당시 경북대 학생운동 선배로서 이후 남민전에 관계됨), 권용원(경북대 학생운동조직인 한풍회 출신으로 74년 시위로 정학처분 중), 이윤기(75년 경북대 시위로 박명규와 함께 제적 처분), 박태주(75년 서울대 시위로 제적 중에 있던 사람으로, 당시 대구경북지역 서울대 운동권 포스트 역할을 함), 권약한(계명대 KSCF 회장으로 대구지역 기독교청년운동을 리드, 현재 목사), 성명미상의 구세군 사관, 김근식·권오국(계명대 학생운동 핵심그룹인 홍정회 이후 새로운 조직 재건에 매진함) 등과 상의하여 대구양협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로드맵에 들어간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1978년 6월 25일 박명규, 이윤기, 박태주 등이 모여 (가칭)대구양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모집에 들어간다. 준비위원회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예비모임을 가진 후, 1978년 7월 14일 황철식 외 11명이 모여서 대구양협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창립대회 준비상황 및 대구 소재 (계명대 부근) 한양서점을 인수하여 경영할 것을 결의하고, 임시조합장에 박명규, 임시전무에 박태주를 선출하였다.

1978년 7월 17일에는 (가칭) 대구양협 명의로 한양서점을 380만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지금의 출처는 박명규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액 염출하였던 것이다. 이후 준비위원회는 사무실과 직영 서점이었던 한양서점에 입주하여 대구양협 업무와 서점 일에 착수한다.

1978년 9월 22일 대구 중구 소재 가톨릭문화회관에서 대구양협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출범을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알린다. 이 날 총회에서 낭독된 창립취지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우리는 양서의 광범위한 선정, 소개 보급을 위해 조합도서관, 서점 및 출판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풍토조성에 노력한다.
-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믿어 개인적 가치의 성취는 물론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이를 위한 조합원 상호계발 기회의 증대에 노력한다.
- 우리는 상호신뢰와 협동의 바탕위에서 소자본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방식과 이익의 소비자 환원에 기초한 경제적 민주주의 확립에 노력한다.
- 우리는 교육 도시로서의 대구가 갖는 도서공급의 불편을 통감하여 읽고자 하는 도서를 주문 배부함으로써 지역적 불이익의 배제에 노력한다.

조합원 148명이 참가한 이 총회에서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 등을 확정하고 이사를 선출하였다. 조합장에 경북대 학생운동 선배이자 팔공재건학교 교장인 서훈씨를, 부조합장에 박명규, 전무에 박태주를 선임하고 조합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그 당시 재정현황은 1978년 9월 22일 현재 출자금이 369,500원이고 부채는 60,000원이었다. 초기의 조합 운영자금은 기본적으로는 조합비로 충당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서훈 조합장 50만원, 황철식 조합원이 30만원을 지원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

2.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총회에서 결의되고 그 이후에 착수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운영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개최

② 조직사업

대학별·조직별 소그룹과 스터디그룹 운영, MT 활동을 통한 양서보급, 교육커리큘럼 개발, 노동야학 추진

③ 교육사업

민주화운동가 및 지역인사와의 만남 (황석영 소설가, 김영원 농민운동가, 염무웅 교수 등), 세미나 및 교양강좌 개설, 회원교육

④ 홍보사업

기관지(달구벌) 발행·배포, 양서목록 개발, 도서관 운영

⑤ 재정사업

금서 보급, 복사집 운영

3.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 소식지에 소개된 주요 양서

대구양협 소식지인 '달구벌' 창간호에 소개된 양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백범사상연구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현대문화연구회, 경제사관의 제문제
- 프란츠 파농, 대지로부터 유배당한 자 (원서)
- J. M. 바스콘셀로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광민사
- C.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흥성사
- 이오덕, 일하는 아이들, 청년사
- B. 앙리레비,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흥성사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 톨스타인 베블렌, 유한계급론, 광민사
- 구중서, 문학을 위하여, 평민사
- 조기준, 신경제사
- 장준하, 돌베개

4.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주요 구성원

대구양협의 주요 구성원은 학생운동 출신의 지역인사들(서훈, 박명규, 이윤기, 서울대 출신 박태주 등)이었다. 조합원들은 대구경북지역 대학생(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효

성여대, 동산간호전문대 등)과 교수, 종교인 그리고 대학원생, 교사, 일부 회사원과 고교생 등 지식인 중심이었다.

1978년 10월 1일 197명으로 출발하여 한 때 1천여명에 다다를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나, 경찰과 정보기관의 방해공작으로 탈퇴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FM방송에 조합이 소개되고 양서가 알려졌을 때(이 당시 한국FM 아나운서였던 이해영씨는 대구양협의 직원이었던 이보영씨의 언니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퇴직 당하게 됨)와 회지 '달구벌' 창간호가 지역 내의 대학교와 고교 등에 다량 배포되었을 때 당국이 회지 발행을 중지시키고 배포된 회지를 모두 수거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대구양협을 지역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대구양협의 사무실이자 직영서점이었던 한양서점 길 건너편에 경찰과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상주하다시피 하여 감시와 간섭이 일상적으로 행해졌고, 조합원들의 집으로 찾아가 그 부모들에게 협박을 하여 탈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5.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의 해산

대구양협은 1978년 9월에 공식 출범하여 1980년 9월경에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의 원인은 첫째, 경찰과 정보기관의 극심한 감시와 간섭으로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해 조합원을 늘리거나 후원자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 둘째 대학과 조직에 보급한 도서 대금이 환수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파탄 직전이었던 점, 셋째 주요 구성원들이 투옥되거나 수배를 당해서 경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다.

특히 부조합장이자 실질적 서점 경영자인 박명규가 각종 시위사건으로 구금, 투옥되어 대구양협 및 서점의 일상적 업무가 추진되지 않아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감시와 탄압을 잘 견뎌내던 그도 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당하고 나서는 더 이상 견뎌낼 여력이 없어서 그 문을 내리고 만다.

6.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에 대한 소회

대구양협은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넓힌 시대적 산물로서 박정희 독재정권의 폭력에 가위 눌려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청년·학생운동가와 대학생들을 연계하여 이념씨클의 MT활동, 스티디그룹의 운영, 민주인사들의 연락처 및 저번 확대, 노동야학의 개설 지원, 양서보급을 통한 민주의식 고양 등의 활동으로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의 사랑방 구실을 수행했지만, 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대구양협에 주도적이었던 구성원들이 구속되거나 수배되어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특히 부조합장이었던 박명규는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한동안 대구지역을 떠나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마산·청송 등) 그 당시 함께 시대를 고민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활동한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지니고 있다. 대구양협은 그 사무실이 지역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주요 구심점이 되다보니 타 지역(서울, 광주, 부산, 울산 등) 민주화운동가들과 수시로 연계되면서 부조합장이었던 박명규는 고초와 곤욕을 치른다. (78년의 경북대 학생시위 배후, 남민전 사건, 79년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등 3개 대 연합시위 배후, 79년 김영종씨사건 - 전 사계절출판사 사장 “나는 사회주의자다”, 80년 5.18 시위 등)

한편 대구양협의 활동과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운동으로는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려고 했던 두레양서조합(두레서점)이 있었는데, 이 조합은 대학에서 4·H 운동을 매개로 한 활동가들이 두레양서조합을 결성하여 경북대 후문 앞에서 두레서점을 운영하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투쟁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되어 그 구성원 9명이 구속되는 조직사건으로 비화된다.

이후 8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생겨난 사회과학 서점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일례로 대구양협 도서관의 책들이 지역 사회과학 서점에 인계되어 소그룹활동에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양협은 긴급조치 9호 시대와 80년 신군부의 정권장악 시기까지 대구경북지역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특히 대구양협에 관계하였던 구성원들이 80년대 초반 이후 지역 민주화운동가로 성장하여 지역운동에서 큰 기여를 하거나 지금도 일부 인사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5
서울양서협동조합을
다시 본다

오균현, 전 서울양서협동조합 전무

1. 들어가는 말
2. 창립배경과 민주화운동의 저변확산운동으로의 양서협동조합
3. 서울양서협동조합의 목표
4. 직장인 조합원대상 의식화교육 프로그램과 시행 결과
5. 당국의 지속적인 사찰
6. 서점 경영의 어려움
7. 재 창립
8. 마치는 글

서울양서협동조합을 다시 본다

오균현(전 서울양서협동조합 전무)

1. 들어가는 말

31년 전, 민주주의를 잔혹하게 짓밟던 유신시절인 10월 어느 날, 부산에서 양서협동조합이 탄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산으로 갔다. 김희욱 전무를 통하여 창립배경과 목적, 그리고 운영 등을 배우고 서울로 왔다. 민주화 운동에 여념이 없는 지인들과 수차례 만나 논의를 했다. 논의 중심은 민주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성이었다. 실무진이 구성되었고 매주 1회 모임을 가졌다. 협동조합의 역사와 근현대사 등을 공부했다. 조직의 방향도 대중화로 정해졌다.

서울양서협동조합 창립발기위원회가 발족되고, 1978년 11월 12일(토) 종로 YMCA 강당에서 창립되었다. 조합장에 변호사 조영환, 부조합장에 김쾌상, 전무에 오균현으로 서울양서협동조합이 탄생되었다. 서대문구 신촌기차역 부근 건물 2층에서 시작하여 평화문으로 이전하고, 다시 이대 후문 부근 주택가로 이전했다. 1983년 3월 해체되었다.

서울양서협동조합이 탄생되고 해체될 때까지의 탄생배경과 지향하는 목표와 그 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의 대중화가 필요한 시기에 탄생된 서울양서협동조합을 통해 현재의 사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2. 창립배경과 민주화운동의 저변확산운동으로의 양서협동조합

양서협동조합의 탄생을 전후한 시기는 박정희정권의 말기로 혹독한 탄압의 연속이었다. 이에 비례하여 민주화운동도 심화되어 갔다. 많은 민주인사가 투옥되고 그 자리를 이은 핵심 인사들은 저변확산운동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시작된 양서협동조합은 대중의 의식화운동의 확산에 적합한 운동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양서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양서협동조합도 같은 상황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절실한 운동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 되었다.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화이트 칼라였다. 또한 이들은 금서로 지정된 책을 구하지 못했다. 언론의 탄압으로 정확한 정보도 얻지도 못했다. 서울양서협동조합 실무진들은 이들을 조직하고 함께 교육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3. 서울양서협동조합의 목표

서울양서협동조합은 ‘양서는 양심을 낳고 양심은 정의로운 사회를 낳는다’ 를 케치프레이드로 내세웠다. 이 케치프레이드가 의미하는 것은 양서는 꼭 읽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민주국가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 되자는 것이다. 서울양서협동조합은 우선 교육을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민주화 마인드를 확고히 하도록 했다. 원대한 꿈도 제시되었다. 민주화된 사회교육을 위해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 이를 바로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서울양서협동조합의 목표에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하였다. 공감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그들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고 도태되었다. 예를 들면, 종로2가에서 광화문까지 양서읽기 캠페인을 벌였다. 화이트칼라 직장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바로 그것이다.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참한 것은 대단한 성과임을 서로가 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저변확대는 조합원 증가로 나타났다.

4. 직장인 조합원대상 의식화교육 프로그램과 시행 결과

의식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저자와의 대화, 유명인사와의 길거리 홍보, 민주화를 위한 대중집회 참석 등이다. 이오덕선생, 김정한선생, 김찬국선생, 한완상선생, 김동길선생 등 유명인사의 책을 중심으로 한 저자와의 대화로 조합원의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했다. ‘양서는 양심을 낳고 양심은 정의로운 사회를 낳는다’ 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 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양서를 매개로한 일종의 낮은 수준의 시위였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저변확대를 염두에 두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도 실시했다. 심화교육 조합원들은 교육진행 실무자의 진지한 모습에 가슴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중요한 실무자로 다른 조합원을 교육했다. 서울양서협동조합은 의식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수준의 민주화 활동 참가자에서 확신에 찬 조합원이 증가 되었다.

또한 의식화의 대중화를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에 양서읽기 캠페인을 제안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MBC 라디오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매주 출연하여 양서를 소개하고 의식화된 글(엽서)를 보내준 청취자에게 그 책은 우편으로 보내 주었다. 그들도 조합원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다.

프로그램은 근대사연구모임, 문학연구모임, 여성학모임, 어린이도서 등 여러 분과로 나누고 조합원은 관심이 있는 분과에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자료집 발간하여 대

중화 운동을 펼쳐 나갔다. 특히 1979년 “세계아동의해”를 맞아 서울양서협동조합에서 어린이전문서점의 개설을 준비했으나 차후로 미루고 어린이책 연구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1980년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창작 어린이 책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결성되어 어린이 책 읽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조직으로 그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 활동은 서울양서협동조합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다.

5. 당국의 지속적인 사찰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하루 종일 감시를 했다. 교육에 참석하는 일반 조합원 따라가서 조사하고 양서협동조합에 참석 못하도록 강요했다. 실무자에게는 으박지르고 소지품을 조사를 했다. 오균현 전무는 수차례 연금되었고 책을 뺏기기도 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루 종일 조사를 당했다. 안기부(현 국정원) 직원은 수시로 와서 금서를 조사하고 실무자를 조사했다. 길거리 캠페인 때는 일반 조합원을 연행하여 조사를 하고 경찰서로 연행을 당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로 내 보내자 마지못해 풀어주었다. 이로 인해 일반 조합원들의 방문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모임에 참석하여 실무자들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수시로 조사당했으나 강도는 약한 수준이었다.

6. 서점 경영의 어려움

서울양서협동조합의 목표가 서점경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경영부진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이 잠식되었다. 월 운영회비도 납부되지 않았다. 실무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출판사에서 구입한 도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에서 도서구매를 하지 못하여 서울양서협동조합에서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서

울양서협동조합에서 출판사에 대신 지급한 것이 운영에 큰 어려움이었다. 그 때의 장부가 민주공원의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다. 경영에 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일이던 계획하면 돈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활동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모두가 실망하고 축소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양서협동조합이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저변확대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자는 것이었다.

7. 재 창립


서울양서협동조합이 해체된 뒤에도 1년에 한 두차례 모임을 하면서 그 정신을 공유하다가 서울양서협동조합의 재창립을 준비하였으나 1년 만에 그만 두게 되었다. 용산에 있던 준비사무실을 어린이도서관연구회가 사용하게 되었다.

8. 마치는 글

현재 살고 있는 시기에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분출하여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이 나타난다. 양서협동조합도 유신말기 독재정권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탄생된 것으로 본다. 그 지역마다 활동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서울양서협동조합은 많은 핵심 민주인사가 혹독한 탄압에 맞서 싸울 때, 민주화운동의 저변확산운동으로 교육과 조직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금서도 거의 없다. 수많은 종류의 책이 출간된다.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된 사회이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회가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고 사회 구성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지켜야 할 도덕과 양심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올바르게 세울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올바른 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선진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6

광주양서협동조합과 5.18민중항쟁

장두석, 전 광주양서협동조합 집행위원장
황일봉, 전 광주양서협동조합 총무
김현주, 전 광주양서협동조합 간사

1. 광주양서협동조합의 태동
2. 독재정권기의 눈엣가시 양서조합
3. 박현채 선생 강의를 마지막으로
4. 격전지였던 도청과 YWCA
5. “화려한 휴가” 관람후의 회고담

광주양서협동조합과 5.18민중항쟁

장두석(전 광주양서협동조합 집행위원장)

황일봉(전 광주양서협동조합 총무)

김현주(전 광주양서협동조합 간사)

1. 광주양서협동조합 태동

1970년대, 유신시대로 접어들면서 장두석 선생은 신협도지부 임원, 가톨릭농민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긴급조치위반, 민청학련, 시국사건 등으로 감옥에 들어간 동지들에게 책을 넣어주는 운동과 더불어 농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구금과 투옥의 길을 걷게 되었다.

77년경 장두석 선생은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김승호, 김형기, 장상순을 만나게 되는데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 일종의 소비자 협동조합인 양서조합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그 시절 평화문 대포 집에서 박현채 선생, 진철환 선생과 술을 나누면서 유신 독재 타도와 민주화, 통일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박현채 선생 집에 가 하룻밤 묵은 적이 있다. 당시 박현채 선생은 청년학도들에게 좋은 책을 보급해 주는 역할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두석 선생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미 생이지지(生而知之)를 통해 인간사와 사물의 이치, 그 갈 길을 터득한 장두석 선생은 그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도

구가 바로 '양서(良書)'라는 것을 알고 평소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다.

유신독재정권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1978년, 장두석은 서경원(전 국회의원), 최성호와 함께 당시 농민회 교육국장이었던 이강을 도피시키기 위해 한센촌으로 내려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김명철 내과에 입원했다. 황일봉과 문병란 선생이 찾아간 것을 계기로 장두석은 황일봉에게 “원주, 서울, 대구 등과 협력해서 양서조합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1978년 6월 27일 '교육지표' 사건이 터진 이후 삼봉조합 선생님들과 대학교수들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혀 독서지도와 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 무렵 장두석 선생은 앞서 얘기한 신협·농민운동은 물론 또 하나의 단체에 가입, 열심히 활동하였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긴급조치 위반자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줄을 서던 암울한 1970년대 후반에 그는 사회 인권운동 차원에서 엠네스티에 가입, 이른바 '재야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이 활동은 5월 광주항쟁 때까지 이어져 장 선생은 다른 수많은 엠네스티 회원들과 함께 상무대 감옥으로 끌려간다. 물론 장 선생은 소위 불온서적 운운하는 책들을 만들고 대여해주었다는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78년 3월경 양서조합은 장두석 선생 집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장두석 선생 집이다보니 아는 사람만 오게 되는 한계가 있었고 장소도 협소하여 더 많은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 YWCA 이애신 총무의 배려로 1층 휴게실에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기에 78년 11월 아래와 같이 11명의 임직원 구성을 하게 되었다.

- 이사장 : 안진오 교수(당시 전남대 해직)
- 부이사장 : 이일행(법률사무소 재직)
- 이사 : 정규완 신부
- 한모길 목사
- 문병란 시인
- 윤영규 선생 (당시 광주여상고 재직)
- 박석무 선생 (당시 대동고 재직)

- 박행삼 선생 (당시 대동고 재직)
- 이사 겸 집행위원장 : 장두석 (당시 신협 및 가톨릭농민회 임원)
- 감사 : 이성학 장로(당시 기독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 임추섭 (당시 중앙여고 교사)
- 총무 : 황일봉
- 간사 : 김현주

휴게실 한 공간에 마련하였기에 YWCA를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이 양서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산만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79년 4월 보증금 없이 임대료 240,000으로 2층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당시 1인 식사대가 700~800원이고 국수가 300원 하던 때였으니 월세는 큰 액수였으리라. 그런데 당시 한 백반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준 고마운 분도 있었다.

임원진은 아니었지만 이방기, 김정수, 송기숙 등 20명의 전남대 교수들, 권광식, 김계안 등 25명의 조선대 교수들, 윤광장, 정해직, 김준태 선생, 위인백(변호사 사무실 재직), 최병인(전남매일 기자) 등등 광주의 많은 재야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민주화를 일궈내기 위해 운영하는 사무실은 양서조합이 거의 유일했고, 그만큼 양서조합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사회운동세력을 결집하고 재건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좋은 책을 읽혀 독서지도와 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건강한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본산이 되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장두석 선생이 신협 및 가톨릭농민회 임원이었기에 시내 여러 신협의 임원들과 재야 어른들의 재정 뒷받침으로 커다란 힘이 되었다.

비품 집기를 관광호텔에서 얻게 해준 황석영(작가), 심상우(전남매일 사장), 정구선(삼보증권 사장), 이성학 장로, 이일행(법률사무소), 박상구(삼양타이어), 대인시장 상인들, 조명제(신협도지부 회장), 전계량(계림신협 상무), 박남훈(북동신협 전무), 김춘동(북동신협 이사장), 김홍용(방립신협 상무), 서경자(남광신협 이사장), 정은수(광천신협 이사장), 김재균(흥민신협 이사), YWCA의 많은 임직원들이셨던 이애신 총무, 간사인 양경자(임채정 母), 고정희, 정유아, 이윤정, 이애라(당시 Y신협 상무), 양현숙 등등 많은 분들의 협력을 받았다.

2. 독재정권의 눈엣가시 양서조합

양서조합은 유신말기 합법적인 공간이 극히 좁아진 70년대 후반의 억압적 상황에서 선진적인 활동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광주YWCA 2층에 있었던 양서조합은 각종 시국강연회를 주최하고,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도 열고, 대학생들이 모여 시국을 토론하는 그야말로 '민주화의 요람'이었다.

유신을 반대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에 여러 민주화세력을 모으면서 YWCA 소강당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국강연회와 구속된 인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황일봉은 광주 시내 구두닦이와 냉마주이를 교육시켰고,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책의 보급운동을 하는 양서협동조합을 펼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투쟁과도 같은 것이었다.

YWCA 2층에 있었던 사무실에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회사원,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몰려들었고, 1,400여명이 조합원(가입비 10,000원, 학생은 가입비 없음)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유신독재철폐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엠네스티와 기독교 인권위원회도 같은 공간을 쓰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무실에는 당시 정부당국이 정한 이른바 '금서'(판매금지도서)인 타오르는 이란, 유한계급론, 들어라 양키들아!, 민중교육론,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이 즐비하였고, 외눈박이를 강요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적 지성으로 이끌어 내었다.

그 활동은 유신정권에는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였고, 때문에 양서조합운동이 순조로울리 만무했다. 문을 연 이후 한시도 감시와 탄압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지만 시민들에게 야만적인 군사독재가 지배하는 시국을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었고,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세력, 노동조합, 농민운동 단체들의 회의장이 되었으며, 유신독재를 타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했다.

박철웅 측근들의 방해로 조선대가 학보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자 발행을 도와주었고, 김재규의 최후진술 등 수많은 유인물이 양서조합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박석무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출판기념회와 문병란선생의 저서 벼들의 속삭임, 호롱불의 역사 등을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발간, 배포하였다.

양서조합을 대표한 강연 중 노동자 농민 강연은 문병란 선생이 주로 많이 했고, 박현채 선생을 비롯하여 각계 저명한 분들이 강연을 했는데, 당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양서조합의 강연회에 가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우스갯소리로 강연이 있을 때는 교사, 교수들은 일명 간수(학생을 지키는 간수라 칭함) 역할을 자칭하기도 했다. 알아야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알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장두석 선생의 신념이 조그마한 결실을 맺어 광주의 많은 젊은이들이 양서조합을 즐겨 찾게 되었다.

YWCA에 사무실이 있고부터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양협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 고등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했다. 당시 대동고에 재직중인 박석무, 윤광장, 박행삼, 중앙여고 재직중인 임추섭, 송문재, 정규철, 광주여상 재직중인 윤영규, 전남고 재직중인 김준태 등 소속된 고등학교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독서회를 통해 학생들을 양협에서 대여한 양서를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을 넓혀갔다. 대동고에서는 양서조합에 출입하던 학생들(김향득, 김효석, 박병인)이 학내에다 ‘독서회’라는 서클을 만들기도 했다. 사례지오, 중앙여고 등도 시도했으나 방학 동안만 잠깐 공부를 할 수 있었지 대동고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회원들은 또한 김상윤이 운영하는 ‘독두서점’이나 윤한봉 등 민청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현대사회문제연구소’도 이용했다. 이처럼 양서조합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장해나갔으며, 의식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단위별로 결집시켜 역량 있는 운동세력으로 만들어 배출하고자 했던 저수지 같은 곳이었다.

양서조합 활동에 남다른 도움을 준 박현채선생! 그때의 양서는 사회과학서적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부분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런 책을 발간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들로서는 한길사, 광민사, 돌베개, 한마당, 청사, 일일서각 등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박현채 선생이었다. 박현채 선생은 각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연락해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 예를 들면 유

한계급론, 알제리 혁명사,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들어라 양키들아 등 수많은 사회과학 서적들을 손쉽게 구해주었다.

한번은 ‘대화’ 지가 판매금지 되었을 때 이것을 구입하기를 원하자 박현채 선생이 직접 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원장을 만나 답판을 짓고 창고 문을 열게 해서 50상자 분량의 책을 구해준 일화도 있다. 광주양서조합이 있게 한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박현채 선생이다. 박현채 선생은 그 뒤로도 광주양서조합이 성장하는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써주었다.

박현채 선생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돕다 1979년에 감옥에 들어가 80년 초에 나왔는데, 그때 장두석 선생은 박현채 선생을 비롯한 임동규, 지정관 동지들의 옥바라지를 지극 정성으로 했다. 동시에 당시 남민전사건이 일어나 조직성원들을 위해 변호사선임, 서명운동 등 구명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신의 일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자신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해준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끼리마스 수녀들은 정부가 압수하려는 ‘금서’ 들을 가톨릭센타내에 있는 서원에 많은 금서들을 감춰주어 조금씩 꺼내서 보급 해갔을 수 있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기증도 많이 받아냈고 녹두서점이 있어 일부 출판사는 녹두서점 소개로 책을 구입하기도 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보완관계가 되기도 했다.

80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측에서는 독서회를 좋지 않게 보고 관련 학생들(매일 양협을 들렸던 학생들)을 징계하려 들었다. 여러 선생님들은 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독서회 같은 조직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책을 읽겠다는데 징계가 웬 말이냐고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장두석 선생은 실무책임자로서 조합운영의 중심에 서서 거침없이 일을 해 나가셨다. 당시 광주경찰서가 100m도 안 되는 지척에 있었지만 선생님이 어찌나 무서운지 당시 이형기 형사, 나재봉 형사, 김용재 정보계장, 윤순동 정보과장 등 담당 형사들은 양서조합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했고, 주변도로에서 계속 감시, 체크만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수원양협에 관여하신 고정석이 자주 들렀었다. 광주는 1980년 3월부터 신군부세력을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3. 박현채 선생 강의를 마지막으로(80.5.17~5.27.)

80년 5월 17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박현채 선생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의 연사는 다름 아닌 박현채 교수였다. 강연은 YWCA 1층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입추의 여지없이 시민, 학생들로 꽉꽉 들어찼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반영하는 듯했다. 특히 고등학생들도 많이 모였는데 학교 측의 방해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모인 것을 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의 선진적인 의식도 엿볼 수 있다.

강연회를 무사히 마치고 자주 이용하는 식당으로 가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자정이 지날 무렵, 라디오에서 이상한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확대 실시'라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박현채 교수는 대뜸 "김새가 이상하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 지내자"는 말과 함께 "문병란 선생을 잘 모시고 공부하라"고 황일봉에게 당부하면서 헤어졌다.

80.5.17일 자정을 기해 많은 운동권 젊은이들이 예비 검속되어 끌려갔다. 18일 일요일 아침, 광주시내는 계엄령철폐를 외치는 시위가 전대 앞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가 시내로 번져 나오자 배치되었던 군인들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으며 우리 양서협동조합은 도청과 가까운 거리인 한 중심부에 있었기에 그 잔혹한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양서조합에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금남로에서 함성소리가 들려와 사무실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뛰어나갔다. 광주은행본점 사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공수부대원들에게 대항할 막강한 조직이 없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갑작스런 사태를 맞아 이를 수습할 만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껏해야 개별적인 움직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갑자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5월 19일 월요일은 모든 직장이 정상출근을 했다. 오전 10시쯤 공수부대원이 YWCA 1층에 있는 신협 사무실로 들어가 용모가 학생처럼 보이는 박용준 군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박용준이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후 공수부대원이 곧바로 2층으로 올라와

양서조합 총무로 있는 황일봉을 현관으로 끌어내어 긴 몽둥이로 내리치려고 했다. 그때 YWCA 신협 책임자인 김영철(정신착란으로 1989년 별세), 황일봉의 여동생 황수진 직원이 동료직원이라며 데려왔다.

황일봉을 때리려 할 때 옆 건물 무등고시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야! 그러지 마라”고 야유를 보내자 공수부대원 몇 명이 무등고시 학원 맨 위층에 올라가 학생들에게 긴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밖에 있던 40여 명의 공수부대원이 무등고시학원의 셔터문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만 올려놓고 청년들을 기어 나오게 하더니만 몽둥이로 머리, 어깨, 허리 등 온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계속해서 군화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무차별 난타하여 청년들은 거의 반죽음 상태였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자비했다. 우리들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공수부대원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YWCA신협의 박용준(1980.5.27 새벽 YWCA 건물에서 총격전으로 사망)이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총만 있다면 모두 쏘아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우리 모두 같은 심정이었다. 공수부대원들은 청년들을 군용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사무실에서 보던 어른들 몇 분과 YWCA 조아라회장, 이애신총무가 끌려간 젊은이들을 구하고자 향의도 했으나 안하무인였으며 이들에게 역부족이었다.

5·18민주화운동 전개과정에서 본 것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어른들이 주요장부(회원 명부 및 장부)를 치우도록 해서 김현주 집으로 옮겼다. 양서조합 명단은 광주 모든 민주인사들의 명부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들통나면 광주의 민중인사들은 거덜날 판국이였기 때문이다.

4. 격전지였던 도청과 YWCA!

양서협동조합 사무실은 YWCA 건물에 있고 도청과 지척 간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로 항쟁 내내 시민대책위원회의 선전물(투사회보 등)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5.27일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후, 당시 보안대에서 나온 이들이 장두석 선생의 집을 짓밟고 “빨갱이 장두석을 찾아내라”고 협박하며 올라대는 통에 사모님이 뇌진탕으로 쓰러지고 아들은 연행되는 이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광주항쟁의 전모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웬만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몸서리쳐졌던 때 보안대 지하실에서 시인 문병란 선생(조선대 교수)과 장두석 선생이 함께 대질신문을 받던 일화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광주항쟁 중에 끌려간 사람들은 일단 화정동 소재의 보안대에서 갖은 고초를 당한 후 곧바로 상무대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장두석 선생과 문병란 선생이 상무대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 지하실에서 나란히 대질신문을 받던 중의 이야기다.

“우리 선생님을 때리지 마시오, 내가 더 건강하고 몸도 좋으니, 앞으로는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이 사람은 보다시피 선비 같은 사람이라 어디 때릴 곳도 없지 않소. 그러니 차라리 나를…”

수사관을 향하여 장 선생은 그렇게 받고 빌었다. 그 덕분에 문병란 선생은 대질신문을 받을 때 계엄부대 수사관들의 몽둥이세례를 면했다고 한다. 반면 장두석 선생은 실로 모진 고초를 받았다.

예로부터 이야기되듯이, 감옥에 같이 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한다. 장두석 선생은 역시 평소 그 자태대로 품위를 잃지 않고, 오히려 항쟁동지들을 위로하고, 간수들(군인) 몰래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하루도 아닌 몇 달의 긴 세월을 감옥살이에서 시달리면,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져서 족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밥 한 손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 아등바등하게 마련인데, 장 선생은 그런 모습을 보면 준엄하게, 때론 따스한 마음으로 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살아왔기에 그의 오늘이 더욱 소중하고 빛나는 것인지 모른다.

김현주의 집은 더 큰 이수라장이 되었다. 큰오빠 김상윤은 예비 검속되었고 제대한 지 1달도 안되는 셋째오빠 김상집은 5월 항쟁 내내 주도적으로 녹두서점과 도청, 시내 곳곳에서 일을 했었기에 27일 새벽 도망갈 시간도 없이 녹두서점에서 큰올케 정현애, 올케 여동생 정현순 등 3명이 연행되어 모두 4명이 연행된 상황이었다. 광주 상황은 아주 험악한 상태라 다른 곳에 부탁 보관하기도 힘들어 집에 있는 금서와 함께 옮긴 장부들을 볼때 워버렸던 것이다.

5.27일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뒤 김현주는 사무실이 궁금해 가볼려고 했으나 항쟁 주력지로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행당한 회원, 피신한 회원, 사망한 회원 등

회원 100% 전부 5.18관련자가 되어 있는 상황 이었다. YWCA 2층에 있는 사무실이 온 전할 리 없었다. 10여일이 지난 후 통행을 허용하여 그 곳에 갔었다. 핏자국을 제거하고 총알을 수거하기에 걸렸던 시간이였을까. 곳곳에 보이는 희미한 자국들, 사면에 총탄자국이 보였고 진열된 책에도 땡 뚫린 총탄 자국이 곳곳에 보였으며 총알은 전부 수거되었던 것이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과 교전하며 신희 실무자 박용준 회원이 사망한 곳이기 많은 책과 자료들이 계엄군들에게 빼앗겨 불살라지는 비극을 맞이하며 그 역사적 소명을 마치게 되었다. 김현주는 26일 녹두서점과는 많이 떨어진 신수동 집으로 들어갔었기에 또한 가족들이 4명이나 연행되어서 바로 연행은 되지 않았다.

다만 6월말, 양서협동조합 회원들 중 연행되지 않고 피신했던 어른들을 찾으려고 녹두서점 문을 열고 있던 김현주는 보안대에 끌려가 며칠 동안 곤욕을 치렀다. 그때는 가족들이 전부 연행된 상황이었기에 녹두서점 문을 열고 있었고 그 험악한 시절이었지만 간혹 사람들이 책을 사는 척 하면서 연락과 소식을 주고받았고 도청을 감수하고 눈치로써 전화연락을 받긴 했었다.

불행 중 다행일까 5·18 항쟁 중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피신했던 어른들의 평소 언행과 행적만 물었기에 보안대에 있는 동안 모르쇠로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광주양서협동조합은 강제로 폐쇄되어버렸다. 막 꽃을 피우려고 명을졌던 꽃나무 들이 5·18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뿌리 채 뽑혀져 버렸기에 다시 조직을 재건할 수 없었다. 양협은 임대료를 5월 한 달만 내지 않고 깨끗이 정리 되었다. 81년 5월 양협과 녹두서점 거래 잔금을 해결키 위해 장두석 선생과 김현주는 서울에 갔다. 녹두서점은 김상윤이 계속 복역 중이었고 경영도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여러 출판사를 다니면서 100%결제가 어려웠기에 20~30%선에서 정리를 마쳤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망하고, 함께 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각기 제 갈길로 흩어졌던 지난 90년대에도, 살아난 지는 영령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개개인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민주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왔다.

끝으로 양서협동조합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하나, 광주 YWCA가 유동으로 이전하며 이 역사적인 건물이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항쟁의 유적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둘, 5·18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광주시민 중 양협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기에 부산에서 의뢰가 있기까지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지 못했고, 장부도 없애버려 세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 그 후에라도 재정비 조직해 지금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안착되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거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어 한없이 통분함을 느낀다.

끝으로 참혹함을 겪은 5·18 당시 광주 대동고 학생이었고 양서회원이었던 3명의 '화려한 휴가' 관람 후 회고담을 덧붙입니다.

“화려한 휴가” 관람후의 회고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울컥하더니 상영 내내 눈물이 쏟아지더라구. 난 원래 악몽 때문에 5·18 관련 영화나 드라마는 안 봤는데 27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

(김효석)

“난 시위대에 섞여 있던 이준기가 죽는 장면에서 영진이 생각나더라.”

(정대철)

“영화 내용이 다 우리 이야기야. 아니 광주시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김향득)

한국현대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광주 대동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꼽친구 셋이 8월 8일(2007년)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SUN 대표 김효석씨(45)와 오월의빛(광주민주화항쟁을 소개하는 단체) 이사 김향득씨(44), 교육공무원 정대철씨(45)다.

이날 광주 무등극장에서 광주민주화항쟁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고 극장문을 나서는 이들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다. 누구보다 1980년 5월을 처절하게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효석씨와 김향득씨는 광주항쟁 당시 고등학생의 몸으로 5월 27일 도청과 YWCA에서 시민군이 최후를 맞을 때 그곳에 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날 함께 체포돼 상무대 한병영창에 구속됐으며, 특히 김효석씨는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후 다른 시국사건으로 수배생활을 한 김효석씨를 숨겨준 인물이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인 정대철씨다. 세 사람은 영화를 관람한 후 총장로의 한 주점에서 소줏잔을 기울이며 27년 전을 회고했다. 학창시절은 그들에게 배꼽잡고 웃을 수 있는 추억 대신 가슴 먹먹한 통증을 남겼다. 처연한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어느 새 사위는 어두워졌다.

김효석 원래 우리 대동고 애들이 반골의식이 강했잖아. 1979년부터 우리가 주도해 보충수업비 반환 및 두발자유화 시위를 했으니까.

김향득 난 그때 행동발달사항이 모두 '다'였어. 2학년 때부터 저항의 몸짓으로 보충수업비 안 내고 머리 길게 기르고 다녔으니까.

김효석 우리 대동고 학생들이 의식화가 빨리 된 데는 1979년 고2 문과반 영어를 가르친 박석무(현 단국대 이사장) 선생님의 영향이 컸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정세나 유신독재의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부조리에 대해 알려주셨으니까. 비밀리에 영자 시사주간지 '타임(TIME)' 반도 만들어 정권이 잘라버린 객관적 보도를 읽게 하셨지. 당시 사춘기로 정의감에 불타 있던 우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했고….

정대철 오늘 영화 보니까 촬영은 광주일고를 배경으로 한 것 같은데 이야기는 딱 대동고더라. 그때를 생각하면 참… 난 너희도 알다시피 집이 광산이어서 버스를 갈아타고 등교를 하려는데 벌써 시내 곳곳에 공수부대가 배치돼 있었어. 버스가 신호대기에 걸려 멈췄을 때 창밖을 내다보다 대검 쪽은 총을 든 공수부대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지 뭐야. 그 눈매가 몹시 섬뜩했어. 겨우 학교에 도착하니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더군. 그 길로 돌아와 광산에 있다가 21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을 형님과 걸어서 광주 아세아극장까지 갔지.

김향득 1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왔다구?

정대철 응. 하지만 형님과 도청 쪽을 향해 발걸음을 떼자마자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어. 더러 겁이 나 그 길로 집까지 뛰다시피하며 걸어간 것 같아. 3시간 걸릴 거리인데 2시간 만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1980년 5월 항쟁 때 별로 기여한 게 없어.

김효석 네가 왜 한 일이 없어? 너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런데 야까 대철이도 말했지만, 영화에서 5월 21일에 도청 앞에서 이준기가 죽는 상황은 영진이(전영진) 사망 상황과 같아. 영진이는 도청 바로 옆 노동청 앞에서 얼굴에 총 맞아 죽었잖아. 당시 난 발포현장에서 몇십 m 안 떨어진 가톨릭센터 앞에 있었어. 기

등 뒤에 몸을 숨겼는데 총알들이 기둥을 스치더라고. 그리고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은 5월 항쟁 지도부 대변인이었던 상원이 형(윤상원)과 기순이 누나(박기순)의 1982년 영혼결혼식을 그린 거더라.

김향득 맞아. 영화에서는 복합적으로 인물들을 대입시킨 거 같아. 지금 인터넷에서는 영화의 실존인물이 누구냐는 공방이 있는데 우린 다 알잖아. 영화에서 미국 함대가 부산항에 도착했다며 시민군들이 좋아하니까 안성기가 그러잖아. 미국은 절대 돕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도 상원 선배가 한 말이었어. 영화에 나오는 김상경과 안성기 캐릭터는 상원 선배를 모델로 한 것 같아.

김호석 그런데 이준기가 애들 몰고 학교 문을 막 나서려고 할 때 선생님이 뺨을 때리며 만류한 장면 있잖아? 실제로는 당시 교무과장 선생님이 우리 앞에 드러누워 “나를 밟고 가라”고 하셨지.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선생님이 나중엔 아이들 얼굴에 치약을 발라주며 함께 시위대에 합류하고 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것으로 묘사되더군. 하지만 그런 선생님은 없었어. 마지막 날까지 도청과 YWCA에 남은 시민군 중 교수나 교사와 같은 소위 지식인은 단 한 명도 없었지. 물론 데모할 때 치약을 이용한 것도 우리가 대학 들어가고 난 후의 이야기야.

정대철 너랑 향득이는 그날 거기에 있었잖아?

김호석 27일에 난 YWCA 현관에 카빈소총 두 자루를 들고 서 있었어. 교련을 배운데다 예비역 중대장 출신이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자리 배치까지 했잖아.

김향득 난 식당에 배치됐어.

김호석 27일 어디선가 총소리와 탱크 구르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다시 조용해지는 거야. 상황 파악을 위해 옥상에 오르다 2~3층 사이 계단에서 창밖 무등산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용준이형(박용준)과 마주쳤어. 그때 형이 그러더군. “효석아. 내일 또 이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어쨌든 옥상에 올라가 보니 대학생 하나가 탱크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어. 상황 파악이 된 난 얼른 1층 현관으로 내려갔는데 느닷없이 3명의 그림자가 우체통 뒤로 몸을 숨기는 거야. 그때 그

쪽에서 “이런 개새끼”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어. 내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양서조합의 문을 열었는데 순간 ‘땡’ 하며 폭탄이 터지더군. 우리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준 예비역 중대장 출신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여기저기서 총탄이 정신없이 쏟아졌어.

김향득 그때 밖에서는 “폭도 여러분, 무기를 버리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는 소리가 울렸잖아. 얼마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끌려갔고.

김호석 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 그날 우체통 뒤에 있던 공수부대원 가운데 중사 한 명이 당시 2층에 있던 예비역 중대장 출신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거야. 경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해니까 나를 가해자로 몰고 갔지. 조서를 보니 내가 현관에서 그에게 총을 쏜 걸로 돼 있더라고. 손을 뒤로 묶고 비명을 막기 위해 걸레를 입에 물게 한 뒤 두들겨 뺐지만 난 끝까지 버텼어. 결국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어. 근데 우리 그때 참 많이 두들겨 맞았어. 고문도 지능적으로 당했고.

김향득 그래도 넌 손가락 고문 안 당했잖아. 난 볼펜 한 자루를 다섯 손가락 사이에 가로로 어긋나게 끼운 채 형사들이 발로 무지막지하게 밟았어.

김호석 맞아. 근데 그때 너의 모습을 회상하면 난 지금도 웃음이 나와. 형사 한 사람이 27일 잡혀온 시민군들을 쭉 불러놓은 상태에서 너한테 “볼펜, 이리 나와!” 했잖아. 그 즉시 넌 앞으로 나서며 “네! 볼펜 김향득입니다” 했고. 형사가 “노래 잘하냐”니까 니가 “아주 잘합니다” 하더니, 니가 애국가를 아주 우렁차게 불러댔잖아. 그것도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형사들도 웃고 잔뜩 구타당한 상태에서 떨고 있던 우리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키득거렸어. 돌이켜 보면 서글픈 일인데… 자식. 그러고 보면 향득이 넌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영똥이’였잖아.

정대철 평소 영똥한 질문을 많이 하고, 비 오면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아 학교 안 갑니다” 했다면?

김향득 그랬지.(웃음)

김효석 난 당시 이쑤시개로 고문당했다.

정대철 이쑤시개로? 어떻게?

김효석 하도 맞아 얼굴이 고 몸이고 퉁퉁 부은 상태에서 더 때리면 피부가 터질 것 같으니까 형사가 이쑤시개로 부은 피부를 콧속 찌르더라고. 차라리 맞는 게 더 낫더라. 근데 그때 부산사람이던 이름 모를 수사관이 난 지금도 고마워. 원래 살인범으로 몰려 현장검증을 가야 하는데 그해 광주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잖아. 사흘 내리 폭우가 쏟아져 현장검증을 못 나갔는데 일주일 후 호명해 나갔더니 그 사이 수사관이 바뀌었다고. 부산사람인 그 수사관이 첨엔 날 살살 달래더니 나중에 “그래 고등학생인 네가 무슨 살인을 했겠냐”면서 조서에 충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마무리해 지장을 찍게 했던 거야.

김향득 난 너한테 항상 미안해. 같이 했는데 넌 삼청교육대에다 학교까지 못 나가고, 난 7월 3일 석방됐고 12일 학교에 돌아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아무도 나한테 말을 붙이지 않았거든. 또 나와 말을 한 아이는 바로 교무실로 불러갔어. 참 답답하더라.

정대철 선생님들이야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아마도 같이 싸우지 못한 죄책감,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거야. 대학입시 준비도 해야 했고.

김효석 그래도 친구들밖에 없더라. 너네 기억나? 난 학교에 못 나가 검정고시를 준비 하면서 종종 너네 만나 해야비치(소주의 일본말)와 캡틴큐 마셨던 거. 너넨 교복, 난 사복 입은 채로 술 마시고 엉엉 울곤 했잖아. 그리고 졸업식은 내 생애 정말 감동적이었어. 졸업식을 앞두고 김희갑(현 총리실 정무수석)이 나더러 졸업식에 오라고 하더라고.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갔더니 식이 끝난 후 3학년 2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네가 여기 뭣 하러 왔냐”고 하더군. 그때 희갑이가 교단에 서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 희갑이는 “우리 친구 효석이가 오늘 비록 졸업장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효석이에게 졸업장을 주는 심정으로 효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어. 눈물이 나더라. 그날 희갑이를 비롯한

반 친구들은 제일극장 골목 소줏집에서 내 졸업파티를 열어줬지.

김향득 그래. 우리는 한 마음이었어.

정대철 우린 영원한 친구지.

김호석 그런데 난 가끔 생각해. 1980년 5월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 후 내 삶은 끊임없이 뭔가를 돌파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형태였고 그렇게 20여 년이 훌쩍 지났어. 성공한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난 주변부 삶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980년이 없었으면 난 어쩌면 예술가가 됐을지 몰라.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발표 7

수원양서협동조합

고정석, 전 수원양서협동조합 전무
유동민, 전 수원양서협동조합 2대 전무
한경호, 전 수원양서협동조합 조합장

1. 들어가면서
2. 제 1기: 창립에서 부마항쟁까지
3. 제 2기: 박정희 사망에서 5·18까지
4. 제 3기: 5·18에서 해산까지

수원양서협동조합

고정석(전 수원양서협동조합 전무)
유동민(전 수원양서협동조합 2대 전무)
한경호(전 수원양서협동조합 조합장)

1. 들어가면서

수원¹⁾에서 양협은 고정석에 의하여 소개되었고²⁾, 서울양협이 결성된 이후 1979년 봄에 창립총회³⁾를 거쳐 수원역 앞에서 가까운 곳에(수원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뒷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좌편에 있었고 후에 역전에 가까운 곳으로, 즉 작은 개천이 있는 옆쪽으로 옮김. 이 자리에 방이 있었고, 고정석은 이 방에서 기거했음) 직영서점을 개설하였다.⁴⁾ 한경호의 말이다.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은 주로 사회과학 책이 중심이었다. 민청학련 사건 및 긴급

-
- 1) 다음은 유동민의 증언임. “수원의 지역 특성은 물이 부족한 위성도시로서 공업용수가 적게 드는 재벌기업의 공장이 많다. 즉 삼성전자, 한일합섬, 대한방직, 선경합섬, 해태유업(한일합섬, 대한방직 부지에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음), 선경마그네틱, 담배인삼공사 수원공장이 있었고, 최전방 전투비행장이 있는 군사도시이기도 한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수원의 인구는 약 30만이었는데 약 3분의1이 철도와 전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용인, 화성, 오산 등에 대학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청, 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있고, 용인, 화성, 오산 등의 주변 소도시의 생활관련 중요행사를 수원에서 치렀던 점도 기인한다. 결국 수원은 경기 남부의 중요교통요충지이고, 교육, 군사, 문화 선진농업도시인데, 도시의 역사가 약 200년으로서 토착민들은 외지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도시이다.”
 - 2) 1978년 직장인 농민신문(주)을 그만 두고 그해 가을 통일사회당에 입당하여 농어민국 부국장으로선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부산에서 양협을 소개받고 서울양협의 회원으로 가입, 수원으로 이사하였음.
 - 3) 가톨릭농촌여성회가 있는 성당에서 열린 것으로 고정석은 기억하고 있음.

조치로 감옥에 갔다가 출옥한 운동권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과학 서적들을 많이 출판하였는데 양서조합은 그런 책들은 주로 판매하였던 것이다. 이는 책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그런 책들을 통해 청년들을 의식화시키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더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구조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였고, 실무자들과 조합원들도 주로 대학생들이어서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조직 형태는 부산양협과 서울양협⁵⁾을 따라 했다. 조합장은 한경호⁶⁾, 전무 겸 서점관리는 고정석이 맡았으며 1979년 12월부터 5.18을 거쳐 1980년 12월까지 유동민이, 1981년 초부터 김영기⁷⁾, 송경숙⁸⁾이 1981년 말 해산할 때까지 맡았다.⁹⁾ 당시 조합원 수는 200명을 넘었고 그 중 학생이 약 120명(60%), 일반인이 80명(40%) 정도였다(유동민).¹⁰⁾

70년대 말과 80년을 거쳐 해산 때까지 3기로 나눌 수 있다. 창립에서 부마항쟁까지, 박정희 사망에서 5.18까지, 5.18에서 해산 때까지다.

-
- 4) 당시 보증금은 100만원이었음. 한경호 조합장이 장인에게 차입한 것임.
 - 5) 부산양협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에 다녀온 김형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서울 양협은 부길만 전무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는데 두 사람은 대광고 동기동창이고 한경호 조합장은 대광고 1년 후배인 관계임.
 - 6)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조교, 수원YWCA의 동아리 '한알'의 성경공부를 가르쳤고, 수원교회(기장) 청년부를 지도하였다. 1985년도에 장신대에 들어가 목사가 된 후 원주에서 농촌목회를 하면서 원주생협, 원주환경운동연합, 강원농목, 남한강삼도생협, (사)생명교육연구소(대안교육운동기구),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등의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며 계간『농촌과목회』를 발간하면서 농촌 및 생명선교와 관계되는 문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 횡성영락교회 목사로 재직 중.
 - 7) 수원토박이로 성대 졸업생임.
 - 8) 수원토박이로 흥대 미대 졸업생임.
 - 9) 이는 유동민의 지신로서 김영기와 송경숙은 출판사와의 채무 누적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며, 조합의 해산은 경영난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음.
 - 10) 학생 중에는 당시 학교를 휴학하고 서점이 자리한 곳인 사창가(이른바 역전)에서 매춘녀들을 상대로 조직 활동을 한 조합원이 한편으로 고교생을 상대로 의식화작업을 하였으며, 그들이 서점을 들락거렸으나 조합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봄.

2. 제1기: 창립에서 부마항쟁까지

조합원은 대학생이 많았다. 79년 당시 수원의 인구는 30만 명이었으며(지금은 110만 명), (1974년 8월 전철이 개통된 이후) 서울로 전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가톨릭농민회¹¹⁾ 경기도지부 임원¹²⁾, 가톨릭농촌여성회 임원¹³⁾, 수원YMCA 총무 백도기 목사¹⁴⁾ 등이 뒷전으로 참여하여 율타리 역할을 해 주었다. 백 목사의 한민교회 신자인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으며, 젊은 노동자와 문학도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수원교회에 다니던 청년들도¹⁵⁾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¹⁶⁾ 조합장과 전무의 모교인 서울 농대생(서울 농대의 이념씨클 출신 졸업생 포함)들의 참여는 자제하였으며¹⁷⁾, 가능한 한 수원 출신 조합원의 모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수원에는 종합대학은 없었으며, 4년제 대학은 단과대학인 서울농대와 아주공대 뿐이었다. 따라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주된 회원이었으며¹⁸⁾, 하교하는 학생들이 수원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도중 한번 들르기에 좋았다. 양협은 소식지(수원양서협동조합)를 발간하였으며, 서점은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서 수원지역 학생들과 농대생¹⁹⁾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시작

11) '전농'의 전신으로 당시에는 기독교농민회는 없었음.

12) 화성의 오익선(초대 회장), 반월의 이건우선생(경기도 회장, 돌아가심) 등이 참여하였음.

13) 이름은 기억하지 못함.

14) 전주 출신임.

15) 당시 수원교회 청년 중 대표적인 사람은 서재경(현재 수원 한민교회 목사), 서진한(현재 대한 기독교서회 기획실장, 김상기(현재 독일에서 18년간의 유학생생활을 하고 귀국한 후 강사로 활동 중), 김대희(현재 한민교회 교인으로 사업가로 활동 중) 등이 있음.

16) 1983년도에 조합원 중 기독교청년들을 중심으로 수원지역에 기독교청년연합기구인 EYC가 결성되기도 하였음.

17) 부산 양협의 경우 송세경, 차성환, 설동일과 전무인 고정석은 모두 「농촌문제연구회(농연)」의 핵심임. 고정석의 대학생활교연합회(대불련)의 회원들은 비운동권으로서 일부 참여하였음.

18) 성균관대, 단국대, 연세대, 서울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대 등 아주 다양했으며, 아주 순박한 중신층 출신이었음.

19) 현재 화성에서 활동 중인 강석찬이 있으며, 김대권도 있었음.

하였다. 당시까지 학생운동은 지역과 별 관계없이 서울대 농대생²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양서조합운동을 통해 농대생들과 지역의 학생들이 교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농대생은 지역과의 소통과 연대를 가질 수 있었고 수원지역학생들은 의식화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젊은 20대 중반이 조합장과 전무를 맡은 조직이라 아주 젊었다. 다만 지역여건과 조합원의 구성원의 성격상 서울 양협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학습 모임 외에 「저자와의 대화」프로그램을 두 차례 가졌다. 소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이 처음이었으며, 마지막은 백도기 목사의 소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이었다. 반응은 별로였다 그리 신통치 않았다. 젊은 20대 초반인 조합원들에게는 와 닿지 않았다고 보인다.²¹⁾ 그러나 이들 회원들은 80년대 후반 기독교, 불교,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주요 인물들로 변화했다고 유동민은 말하였다.

전무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이고 통일사회당 농어민국 부국장이자 79년 여름 전남 영광의 「길산농장²²⁾」의 수박을 조합원(주로 학생)들이 팔고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수원이 도청소재지이기는 하나 운동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조용한 기지개를 편 시기라고 볼 수 있었다.

20) 여기에 서울대 정외과에 재학 중인 이재완도 포함됨. 뒤에 반월의 이건우선생과 함께 생협 운동에 투신함. 이외에 양원주는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여 용인에서 농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후 서울에서 수의사 개업을 함.

21) 이에 대해 유동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작가와 대화는 그 주제로 삼았던 책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만다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화두로 고민하던 주인공 지인이 피안역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며 사창가 여인과 2층집을 짓고 그 여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열차표를 찢어버리고 바깥 움직이는 군중 속으로 같이 섞이는 것이고, 백도기 목사의 「가룟유다의 증언」은 민족 독립이 최우선 과제였던 때에 유대인들이 왕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자 예수는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라며 이를 거절했고, 독립운동가(제룟당원)였던 유다가 모터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액수(30테나리온)에 예수를 판 것이 민중봉기를 위한 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내용인 점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이 독서토론의 주제가 당시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 내지 과제 아니었을까? 여하튼 당시 조합원들은 모두 그야말로 생각이 맑았고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다.”

22) 농장은 전남대 농대 졸업생들이 만들었으며, 5.18 이후 문을 닫고, 각각 목사(청주), 신협(평주), 농민회(전남 보성), 노동조합(대전) 등으로 흩어짐.

3. 제2기: 박정희 사망에서 5.18까지

그러나 79년 들어 정국은 요동치고 있었다. 78년의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경제는 파국을 치닫고 있었다. 신민당사에서 YH여공의 사망(8월11일, 이른바 YH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²³⁾ 79년 봄 미 대통령 카터와 박정희는 격렬하게 대립했으며, 급기야 제1야당의 총재인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였다.²⁴⁾

서울의 위성도시인 수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박정희가 피살되기 전의 일이다. 당시 돼지고기 값이 하도 싸서 우린 서점에 떨어진 방에서 매일 소주에 고기잔치를 벌이곤 했다.²⁵⁾ 부마항쟁이 터진 후 고정석은 부산에 들러 상황을 보고 광주에 들렀다. 광주에서는 저사일을 11월3일 '학생의 날'로 잡고 있었다.²⁶⁾

고정석과 유동민과 젊은 조합원들은 박정희가 죽기 전날인 10월 25일에도 밤새워 불(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제 격동기가 닥치고 있었으며, 양협은 새롭게 변신할 기회가 왔

23) 당시 그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서 노동의 자유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감사가 약한 부산지역의 경공업에 취직하고 있었음.

24) 공화당이 10월4일 졸권 유신정권과 각을 세웠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부산과 마산 시민의 궤기에 기폭제가 됐다. 그것이 부마항쟁이었다. 유신정권을 둘러싼 총체적 민심 이반의 결과가 부마항쟁으로 나타난 셈이다.

25) 김재규 부장이 지적한 부마항쟁의 배경은 크게 3가지이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부 정책 불신, 물가 폭등 등이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값이 싸다고 한 것은 사료 값의 급등으로 더 이상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농민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출하했기 때문임. 당시 주점에서는 야채 값이 비싸 상추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였음.

26) 훗날 5.18을 주도한 세력(5.18 때 사망한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들불야학팀)들은 즉시 실천에 옮기자고 주장했지만 녹두서점(김상운) 등은 11월 3일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한겨레21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김재규가 쓰지 않았다면 [2009.10.23 제782회 "서울로 돌아온 김 부장이 곧바로 찾은 곳은 청와대였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계원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은 정부가 근본적 민심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부마항쟁이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광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시키겠느냐(1980년 1월28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항소보충이유서).") 고정석은 김부장과 비슷한 시기에 부산을 방문하고 이어 광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와 당에 보고하고 수원으로 돌아옴.

었다. 이제 수원의 독립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²⁷⁾ 당시 수원은 서울농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별 것이 없었다. 60년대 말 경기도청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70년대 들어 선경합섬, 삼성전자 등이 들어서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농업과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계급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보듯이 젊은 청년들이 커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유학생이 아닌 토박이들이 나타났다. 소설가 김남일도 이때 눈을 뜨고 있었다.

한편 고정석의 고향이 광주인 탓에, 1980년 겨울방학 때 몇몇 학생조합원들과 광주를 방문하여 당시 YWCA에 자리한 양협외 서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기관원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에 비례해 조합원들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전무 고정석은 점점 조합에서 손을 놓고 유동민²⁸⁾이 주도하고 있었다. 당시 서점에는 훗날 남민전, 5.18, 미스유

27) 2006년 06월 12일 (월),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도서명 : 冊(책), 지은이 : 김남일, 출판사 : 문학동네, 256쪽, 9천500원

경기도 수원출생의 소설가 김남일씨가 '책'과 얽힌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생각, 그 내밀한 추억을 꺼내 놓았다. 지난달 30일 출간된 산문집 '冊(책)'을 통해서다. "평생 딱 세 권의 산문집을 내고 싶다. 멋을 좀 부려 '산/책/길'이라고 이름지었다. 말 그대로 산과 책과 길에 관한 책들이다" 이 책은 김씨가 기획했던 산문집 시리즈의 첫 권이자, 노동자와 농민의 현실을 그려 온 소설가의 첫 산문집이라 할 수 있다. 김씨는 어린 시절 그를 매혹했던 작은 서가, 젊은 영혼을 뒤흔들었던 '시벨리' 불온서적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을 안겼던 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본문에선 수원의 어느 허름한 책방이 소개된다. 세무서 뒤쪽 역전 가는 셋갈가에 있던 불품이라곤 하나도 없던 길가에 불온한 냄새를 풍기던 양서협동조합(작가의 기억속에 새겨진 책방 이름이라고 한다). 책에 코를 박은 채 일어 공부할 핑계삼아 모인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와 발전' 등의 책을 일주일 치기로 읽어치우는 속성 독해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작가에게 그 초라한 서점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혁명을 위해 재벌 회장집에 들어가 강도를 벌이다가 잡힌 '전사', 조직과 보안의 중요성 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으로 느꼈던 공간이었다. 용돈이 생기면 어김없이 서점으로 달려갔던 소년기, 청계천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조세희의 연작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이 실린 잡지를 사모으던 청년기,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7년치 종이신문, 중국어와 베트남어·티베트어·몽골어에 이르는 각종 사전 수집벽까지 책 자체가 인생이 된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펼쳐진다. 이러한 삶에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문학·노동문학 작가였고,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상처난 역사적 관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이끌어온 그의 진지하고 치열한 이력들이 설명된다. 한겨레 21 '고경태 편집장은 "구닥다리만 모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향기로운 '클래식' 투성이입니다"라며 "작가의 인생을 거세게 흔든 '영혼의 앨범'으로 소개된 책들과 작가의 곡절은 또 누군가의 인생을 강력하게 흔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소개했다. /류설아가자 rsa@

28) 고향은 충청도이지만 어머니와 부인 두 딸, 남동생과 부인의 동생들이 오산 또는 수원에 뿌리박은 수원 사람이며 노동자임. 부인도 노동자 출신임. 유의 기억으로는 1979년 12월에 서점에 들락거리다가 고정석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 아예 상근을 하게 되고 자신이 1980년 12월까지 서점을 경영하였음. 1981년 1월부터 고정석과 유동민은 소비자 and 생산자 간의 직거래운동을 하기 위하여 화서동 주공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싸전과 슈퍼를 임차하여 쌀을 중심으로 무농약쌀과 저장성이 좋은 마늘과 고추 등 판매를 시도 하였으나 1983년도에 정리하였음.

니버시아대회 폭파미수사건 및 외국인유학생간첩사건의 주역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고정석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1980년 봄²⁹⁾ 수원에서 서울농대생만의 시위가 아닌 수원시민들의 시위가 국도 1호선의 팔달로 광장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대낮에 차량을 막고 시민들이 길에 나섰다. 그 전까지 시위는 서울농대생만의 시위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1974년 가을 수원에서 유신 이후 최초의 가두시위가 벌어진 이후 최초의 시위³⁰⁾였지만 주체가 달랐다. 1974년은 서울농대생이 교정을 나와 이후부터 남문시장을 시작하여 북문 등에서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수원에 있는 학생들의 축제로서 마치 광주에서 데모하는 것과 같았다. 다양한 계급,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들이 국도1번의 팔달로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³¹⁾

어느새 양협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정보교환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다. 경영은 악화되었으며, 김남일이 말한 바와 같이 “세무서 뒤쪽 역전 가는 셋길가에 있던 볼품이라곤 하나도 없던 길가에 불온한 냄새를 풍기던 ‘양서협동조합(작가의 기억속에 새겨진 책방 이름이라고 한다)”처럼 불온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³²⁾

29) 서울역에서의 회군이 이루어진 5월15일인 5월 초 동교동계에서 만든 연청(당시 회장 김홍길)에서 전국의 대도시의 운동권을 만나기로 했다는 첩보를 받은 통일사회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인한 ‘서울의 봄’ 좌절과 군부 개입 등을 우려해 대전, 대구, 광주 등을 뒤따라 방문하기로 했음. 5월5일께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박관현)을 만나지는 못했으나(부산발 광주행 지연), 광주의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광주에서는 5월10일 평화적인 집회로서 시위를 마감하였음. 현대사회연구소(소장 윤한봉, 5.18후 미국에 망명, 귀국한 뒤 김대중을 격렬하게 비난함)는 연청과의 연대를 강력하게 부정하였으나, 연청의 좌파는 사실이라고 전하였음. 1987년 평민당 창당 후 정상용(광주일고 출신)은 광주에서, 박석무(광주고)는 전남 무안에서 국회에 입성하였음.

30) 1972년10월 유신 이후 최초의 데모는 1973년10월2일 서울 종로 동숭동의 서울문리대 교정(지금은 마로니에광장)에서 이루어졌음. 고정석의 형이 주도하고 교정에서 체포되어 군으로 입대함. 박정희정권은 1975년 긴급조치9호 때까지는 학생들의 시위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고 보임. 이때 고정석은 권고 자퇴하여 마신에 있었으며, 광주에 돌아와 형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10월 4일 서울로 올라가 형이 보안사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확인함.

31) 10일 광주, 15일 수원에서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 후 고정석은 서울로 올라가며, 남영동 당사를 방문하던 중 회군하던 시민들과 만나 심재철의 회군 결정 소식을 접하였음.

32) 이에 대해 유동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 “당시 양서협동조합은 이념(목적), 조직, 사업, 예산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념적으로 명쾌하지도 않았으며, 문화 내지 사회운동도 활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실패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생각이 맑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 상당수(강석찬, 양원주, 김대권, 이재완)가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기여했다.”

4. 제 3기: 5.18에서 해산까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수원의 대학들도 문을 닫았다. 5월 18일 수원에서 시위가 불발하자, 밤에 서점을 찾아온 양희구, 김현인, 정혁기 등³³⁾과 함께 고정석은 광주로 내려갔다. 5월19일 광주의 새벽 역은 수원과 달랐다. 착검한 공수 부대원들이 학생들을 얼차리기하거나 엎드려 뺨치기를 시키고 있었다. 고정석은 상황을 파악한 후 전남대 학생회 간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고 나머지 셋은 광주에 남기로 결정했다. 우린 당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원의 서점에 이 소식을 전했다. 유동민과 김영기³⁴⁾ 등은 고정석이 기초한 '내가 본 광주의 진실' 이라는 글을 등사하여 수원지역에 뿌리기도 하였다.

휴교령이 내린 동안 서점은 젊은이들의 사랑방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원들이 서점에 자주 들르곤 했다. 유동민은 고정석과 함께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학교를 졸업한 김영기에게 전무직을 넘겼으며, 고정석은 1982년 광주로 내려갔으며, 김영기는 송경숙에게 자리를 넘겼으며, 1981년 말 조합장과 상의하여 해산하였다.³⁵⁾

33) 고정석의 고교(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들로서 모두 서울농대 재학 중인 자들로 이 때 광주에 남아 싸웠으며, 전자는 망월동 묘지에 묻혀 있으며, 김은 농사를 짓고 있고, 정은 훗날 '말' 지사장을 거쳐 현재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음.

34)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조합원으로서 이른바 운동권은 아니나 지도력을 지닌 맑은 청년임. 김남일과 막역한 사이임.

35) 고정석은 5.18 이후, 해산한 사회당 재건에 힘을 쓰다가 82년 낙향하여 광주에서 살고 있으며, 조합장은 원주, 유동민은 화성에서 노동상담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